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7822.24	↓ 코스닥	1207.34
	(+324.24)		(-0.38)
↑ 금리 (2년)	3.598	↑ 환율 (원/달러)	1472.40
	(+0.029)		(+0.70)

2차 고유가 지원금  
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지급  
02



## “제도화 없으면 결렬” vs “1인당 5.4억 제안”

(노조)

(사측 추산)

## 시총 7000조 돌파 8000피도 다 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장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넘어섰다. 지수는 ‘팔천피(코스피 8000)’까지 불과 177.76포인트를 남겨두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70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가 6404조원, 코스닥시장은 673조원이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의 약 4조원까지 더한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지난달 27일 6000조원을 넘어선 후 8거래일 만에 1000조원이 불었다. 1년 새 3배 가까이 커졌다. 이는 또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진 작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 2663조원의 약 2.66배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이렇듯 불어나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덕분에 코스피지수는 4.32% 오른 7822.24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8거래일 만에 시총 1000조 뛰어 삼성·SK 등 반도체주 급등 영향 코스피 4.32% 오른 7822.24 마감

특히 이날 삼성전자는 6.33% 오른 28만5500원, SK하이닉스는 11.51% 급등한 188만원에 마감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3000조원으로 커졌다.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 전체 주식시장에서 비율은 약 42%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반도체 부문의 장기 이익 성장과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고려할 때 코스피가 단기에는 1만2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는 JP모건 또한 코스피 목표치를 1만 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이 수분기에 결친 가격-물량 계약에 묶여 있는 만큼 가격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등도 코스피 전망을 8000~8500으로 높여 잡았다.

다만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면서 ‘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에 빛을 내서 뛰어들거나 아예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136조989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빛투(빛내서 투자)’를 뜻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7일 35조5072억원에 달한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metro

### 삼성전자 노사 막판협상

노조 “영업익 15% 상한 폐지를 회사, 전향적 변화 있다면 ‘고민’”  
사측 “상한폐지 받아들일 수 없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가 없으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세종 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교섭 중단 이후 45일 만에 공식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 동의로 진행되는 추가 중재 절차로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절차는 12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협상장 입장에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조정이 결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HBM(고대역폭메모리)도 원팀으로 협업하면 보상을 준다 했지만 개발 이후 흠여졌다”며 “명문화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 최승호 위원장 등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뉴시스

고 제도화 관점에서만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면 고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사측은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측과 노조는 단순 금액이 아니라 향후 보상 기준을 고정할지를 둘러싼 충돌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 직원에게 경쟁사 이상을 보장하는 특별 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사측 제안 기준으로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평균 5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DS부문 임직원 1인당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 규모다.

노조 내부 이견도 협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급 논의가 디바이스솔

루션(DS)부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소외된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강경 투쟁의 핵심인 DS부문 내부에서도 실질적 타격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S부문 한 직원은 (메트로경제)에 “성과급이 결국 성과에 따른 보상인데, 실적을 올린 메모리 부문 성과급만 보장해준다면 합의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생보사, 1분기 보험 해약 5조... 증시로 ‘머니무브’

생보 빅3, 해약환급금 6882억 증가  
저축성보험 증가비율 77.5% 달해  
보험뿐 “해지율 상승시 CSM 감소”

증시 랠리 속에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보험을 깨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생보사 빅3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이 5조원에 육박했다. 대부분 저축성보험 해약으로 생보사의 기존 계약 유지와 해지율 가정 관리가 중요해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생보 빅3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은 4조8985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2103억원보다 6882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6.3%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이다. 해약환급금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중도 해지에 따른 보험사의 환급금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는 의미다.



Chat GPT가 생성한 저축성보험 해약 이미지.

주목할 대목은 저축성보험이다. 생보 빅3의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1분기 2조2953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8288억원으로 5335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3.2%다. 전체 해약환급금 증가분 6882억원 가운데 저축성보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에 달한다. 전체 해약환급금 중 저축성보험 비중도 같은 기간 54.5%에서 57.7%로 높아졌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도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저축성보험에 미치지 못했다. 생보 빅3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1분기 1조915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697억원으로 1547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8.1%다.

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를 최근 자산시장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에는 급등하면서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계약까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보다 현금성·저축성 성격이 강해 자산시장 상승 국면에서 해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생보사 입장에서는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가 단순한 환급금 지급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생보사의 핵심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신계약확보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유지율과 해지율 가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실제 해지 흐름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계리적 가정 조정과 미래이익 인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보험연구원도 올해 보험산업의 주요

변수로 계리적 가정 관리를 꼽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6년 보험산업 전망”에서 “해지율 상승 시 생명보험회사의 CSM이 평균 1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 계약에서 장래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실현 이익이다. 해지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향후 인식할 수 있는 이익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은 국내 생보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사라는 점에서 이번 흐름은 업권 전반의 저축성보험 이탈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수요가 저축성보험 해약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보험 해약을 모두 ‘몰가와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약 사유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유정복 “박찬대, 지방채 없이 2400억 2차추경은 거짓말” /사진 뉴시스

▲輿 김용남 “세월호 발언, 유가족에 사죄드려...尹캠프 활동도 인생의 오점”

▲한동훈 선대위 “기자 낙상 외면? 허위사실”... 법적 대응 경고

▲박형준, 단식농성 정이한 찾아...“토론회 참여 긍정적”

▲이장우 “민선8기 확충 인프라 바탕 문화예술 전폭 지원”

▲천호성 “학력 넘어 모두가 실력 키우는 수업 혁신 추진”

# 李 대통령, 토허제 완화 논란 반박 “갭투자 허용 주장은 과도한 해석”

비거주 1주택자 한시적 예외 검토  
형평성 보장을 위한 매도기회 강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필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가(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한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설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논란이 확산

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투기 수요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서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허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이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지급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4인가구 기준 3월 건보료 32만원 이하  
18일부터 지급... 첫 주만 요일제 적용

우리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취약계층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씩 지급된다. 우선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만 원 이거나 13만 원을 밑돌면 받는다. 외벌이 4인가구 대상자는 건보료 32만 원 이하다.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 39만 원 이하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소득 하위 70% 국민 선정기준 등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차 지원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별 편차가 존재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소득 하위 70% 국민 선정 기준일은 올해 3월 30일이다. 해당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대상자를 추렸다.

주소지가 다를 시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

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부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1주택자 기준)가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인 경우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자율이 2%일 때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일 때 투자금 10억 원 수준이다.

이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건보료 13만 원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6만 원 ▲4인가구 32만 원 ▲5인가구 39만 원 이하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과 동일하거나 하회하면 지급 대상자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4340만 원 ▲2인가구 4674만 원 ▲3인가구 8679만 원 ▲4인가구 1억 682만 원 이하 등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8만 원 ▲2인가구 12만 원 ▲3인가구 19만 원 ▲4인가구 22만 원 ▲5인가구 24만 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엔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4만 원 ▲4인가구 30만 원 ▲5인가구 36만 원 등이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1, 2차 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단, 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 마감) 운영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KREI “중동사태, 수입 소고기·닭고기 가격 밀어올려”

석유 가격 폭등에 따른 해상운임 영향

중동 사태가 수입 소고기·닭고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국제 석유류 가격 폭등에 국제 해상운임도 같이 오름세를 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1일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해외 주요 축산물 수급동향’에 따르면 3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683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6% 뛰었다.

지표 SCFI는 국제 해상물류의 최신 추이를 나타낸다. 최근 홍해 항로 불안까지 겹치면서 해운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산물은 대표적인 냉동·냉장 컨테이너 운송 품목 중 하나다. 유류비와 운임 등의 상승은 수입단가는 물론, 국내 유통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4월 소고기 수입단가는 kg당 8.79달러로 전년대비 6.6% 올랐다. 미국산이 1.8%, 호주산이 12.4%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달 닭고기 수입단가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kg당 2.31달러로 전년대비 15.8%나 올랐다. 이 중 브라질에서 들여온 닭고기는 2.40달러로 20.9% 급등했다.

국제 유류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3월 세계유류가격지수는 127.7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특히 소고기 가격지수가 13.8% 급등했다.

그나마 돼지고기 값은 오르지 않았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공급 확대 덕분이다. 4월 국내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1.8% 내렸다. 다만 향후의 문제는 사료·냉동보관·가공 비용이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시 수입단가 오름세가 사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KREI는 “올해 국가별 공급 여건 및 물류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 정부, 이례적 노사 압박... “사회적 책임감 가져야”

>> 1면 ‘제도화 없으면 결렬’서 계속

정부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협력업체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중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임금협약 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일부라도 명문화될 경우 삼성전

자 보상 체계는 물론 대기업 전반의 성과급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2024년 첫 파업은 참여 인원이 노조원의 15% 수준에 그쳐 생산 차질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만 3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초기업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는 만큼 참여 인원이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생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4월 대규모 집회 이후 애플, HP 등 주요 고객사들의 공급 안정성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증

권은 18일간 파업 시 D램 3~4%, 낸드 2~3%의 글로벌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JP모건도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 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설비 정비비와 수출 회복에 3주가량이 추가로 소요돼 생산 정상화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자율 교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열혈에 불과하다. 12일 오후 2차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실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metro

# “반도체 훈풍에 수출 반등”… 올해 경제성장률 2.8% 전망

금융연구원, 기존보다 0.7%p 높여  
설비투자 확대가 회복세 뒷받침  
ICT 품목 호조에 대외 여건 개선

고유가 장기화에 물가 부담 커져  
중동 리스크에 전망 불확실성 고조

금융연구원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8%로 전망했다.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2.1%)보다 0.7%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확대되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수출 및 설비투자가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연구원은 11일 '2026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2.1%)를 상향했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는 호르무즈해협 영향이 크게 받는 나라로 중동지역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한다”며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망 시계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이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나누리 기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실장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내다봤다. 1분기에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었지만, 2분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상승하며 202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

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심리를 나타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5%로 관측했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일부 건설자재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차 유가 급등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3~7개월 시차를 두고 건설자재가격으로 전가된다. 원유조달 차질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이 하락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7%로 반등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총수출 증가율을 6.3%로 높게 전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컴퓨터 기억장치(SSD포함) 및 이동전화기 수출물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0%, 150% 증가했다. 반도체 이외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들도 전반적인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총수출 증가율이 6.3%까지 상승할 것이라 분석이다.

김 실장은 “과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충격 당시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IT부문의 수출 물가가 하락 국면을 지속했다”면서도 “이번에는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IT 이외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5%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IT 수출물가도 10.1% 증가하며 수출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상방압력과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국내경기 개선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급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길어지고 반도체 부문 호황에 따라 경기가 개선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 환율 1470원대에 물가 경고등… 한은, 금리 ‘인상’ 가능성 고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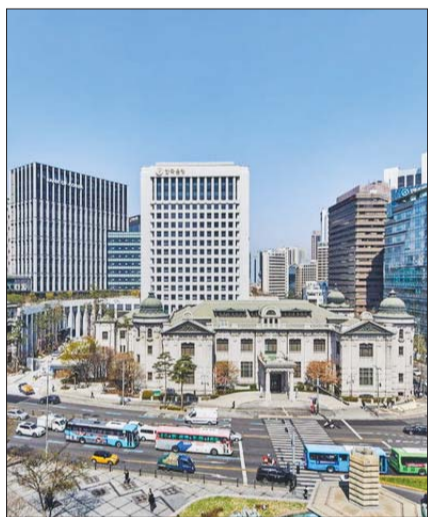
경상·무역 흑자에도 원화 약세  
중동 리스크에 달러 선호 겹쳐  
소비자물가 2.6%로 부담 확대  
내달 금통위 금리 경로 주목

물가와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선택도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 점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지만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다.

11일 한국은행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0% 증가한 85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과 경상수지만 놓고 보면 원화 강세 재료가 쌓인 셈이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흐름은 반대다. 지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7원 오른 1471.7원에 마감했다.

문제는 반도체가 성장을 떠받칠수록



고환율, 고물가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은 약해진다. 당초 중동 사태 장기화는 유가 상승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성장률을 낮추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하방압력을 방어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추는 경기 방어보다 물가안정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지표도 한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2.2%보다 0.4%포인트(p) 높아졌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각각 2.2% 올랐다.

한은도 물가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4월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국면이다.

### ◆ 환율이 물가 부담 키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달러 선호, 외국인 자금 흐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길어지면 한은의

금리 선택은 더 복잡해진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석유류·공업제품·서비스가격을 거쳐 체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유가 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경우 한은은 성장보다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율 수준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하면서도 중동 사태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 성장률 달성 의지도 유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커 지금 시점에서 성장률을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초 약속한 2.0%는 어쨌거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 5월 금통위 ‘점도표’ 주목

유상대 한은 부총제도 금리 인하 사이

클 이후의 경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유 부총재는 사마르칸트 기자간담회에서 중동발 충격 이후 물가 상방 압력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예상보다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금리를 인상 내지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 현재 상황이 확인된다면 2월 점도표보다 금리 경로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당장 5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발언이라기보다, 성장·물가·환율 조건이 바뀔 만큼 향후 금리 경로 상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5월 금통위까지 상황을 더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 10월부터 현대차 2000대 실증

국토부, 모빌리티 특례 16건 승인  
초기 비용 낮춰 전기차 보급 확대  
리스사 회수·재사용해 요금 완화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초기 구매 문턱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자’ 등 16건의 실증특례 안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부른다. 최대 4년간 실증 기회가 주어지며 성과가 입증되면 정식 제도에 편입된다.

이번 특례에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소비자가 배터리를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부담이 큰 편이다. 배터리 소유권을 가진 리스사에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초기 구매비용을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점에 구독 서비스가 조삼모사식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잔존가치 만큼 구독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스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원래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의 경우 자기인증 취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

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자기인증 없이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등에 대한 특례도 함께 의결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실증 특례와 관련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와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HMM 나무호 수리 돌입… 정상운항까지 한두 달 가량 예상”

호르무즈 해협 피격 후 두바이항 도착 변수 많아 수리 후 상황 예측 어려워 수리 길어지면 신규 운송 차질 타격 기존 운항 일정 등 기회비용 상당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당한 HMM 나무호가 정상 운항을 위한 수리 기간이 최소 한두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HMM 관계자는 11일 “현재 우리 선박은 두바이 항구에 도착해 현지 수리조선소에서 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지 조선소와 협의해 나무호 수리작업에 돌입하며 정상운항을 위한 작업 기간은 한두 달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는 8일야에 두바이항에 도착했다. 나흘에 걸쳐 선박을 이동시킨 것은 예인선을 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안전하게 운항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휴전 상태에서 하루 15척 이하의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허용되며 항행은 이란의 승인과 특정 프로토콜 집행을 조건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해운사들이 선박을 두바이 앞으로 이동시켰으며 HMM

M 나무호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 관계자는 “당시 선박들이 해협 통과를 위해 입구쪽으로 이동해 있었고 나무호도 해협 안쪽으로 이동해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피신한 상태고 현지 변수가 많



▲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훼손된 나무호 선미 외판 모습. /외교부

◀ HMM 나무호.

아 선박 수리 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피격 부위인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약 5m, 선체 내부 방향으로 깊이 약 7m 규모의 파공이 발생했다.

나무호는 적재용량(DWT) 3만8000t 급의 다목적 화물선(MPV)으로 전쟁보

험 특약을 통해 전선 시 최대 100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나무호가 두 달 동안 갇힌 상황에서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신규 운송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3월 말 기준 전쟁보험료, 유류비, 선원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며 하루 약 4억9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기존 운항 일정이 차질을 빚고 신규 운송 계약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무호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중국 칭다오와 평라이, 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 화물을 선적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민간선박 공격 용납 안 돼… 강력 규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추가 조사 통해 공격 주체 등 식별 비행체 2기, 1분 간격 두 차례 타격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1일 HMM 나무호 폭발 사고가 외부 피격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 조사로 공격 주체를 파악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1m 내지 1.5m 정도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비행체 정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앞서 지난 6일 외부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때는 파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수가 없었고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말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격 가능성을 조금 더 인지하게 된 것은 이후의 상황, 한참 후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위 실장은 선박의 침수나 기울어짐이 없어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브리핑했으나,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격 충격으로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으며 해당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박을 공격한 주체와 관련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 미지의 영역이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러 나라의 가능성도 놓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청약 전수조사

국토부-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 총 43개 단지, 2.5만 가구 대상 진행

#. A씨는 아내, 자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만 뒷집 장인·장모 세대로 전입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서울 분양 아파트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것이다.

#. B씨와 C씨는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혼인 신고를 했지만 법원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정부가 부정청약자를 가려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동장 당첨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과 기타 지역 인기 단지다.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포함한다. 정부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의심사례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가점제상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인 만점동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

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들여다본다. 청약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과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이다.

정부는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



# 크라프트론, 쏘카 자율주행에 650억 투자 배틀그라운드 넘어 퍼지컬 AI 사업 확장

쏘카, ‘에이펙스 모빌리티’ 설립 추진 AI 학습·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크라프트론이 자율주행 시장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AI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게임 개발을 넘어 퍼지컬 AI와 모빌리티 데이터 영역까지 사업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프트론은 쏘카의 자율주행 사업에 65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 쏘카는 이를 기반으로 1500억원 규모 자율주행 신규 법인 ‘에이펙스 모빌리티’ 설립을 추진 중이다. 크라프트론은 향후 신설 법인 투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를 단순 재무적 투자보다 크라프트론의 AI 사업 확대 전략 일환으로 해석한다. 최근 크라프트론이 게임 AI를 넘어 현실 세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퍼지컬 AI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데이터다. 자율주행 산업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실제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쏘카는 전국 카셰어링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2만5000대 차량에서 하루 110만km 규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

업계에서는 크라프트론이 이러한 데이터를 AI 학습과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에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게임 AI와 자율주행 AI 모두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행동 예측, 실시간 판단 기술이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크라프트론은 최근 전사적인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업 조직 업무 자동화를 위한 AI 엔지니어 채용 확대에 나섰고, 게임 개발 과정에도 AI 기술 접목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 ◆ 게임 넘어 ‘퍼지컬 AI’ 확장

최근 크라프트론의 움직임은 단순 게임 사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회사는 현실



크라프트론과 쏘카가 자율주행 사업 협력 및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 /각사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퍼지컬 AI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앞서 크라프트론은 퍼지컬 AI 연구를 위해 ‘루도로보틱스’를 설립했다. 또 한 화에어로스페이스와 퍼지컬 AI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방산·로보틱스 분야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크라프트론은 AI를 단순 게임 기능 강화 수준이 아니라 미래 핵심 산업 기술로 접근하는 분위기”라며 “게임에서 축적한 시뮬레이션 기술과 AI 역량을 현실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배틀그라운드 이후’ 성장동력 찾기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를 ‘포스트배틀그라운드’ 전략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PUBG: 배틀그라운드’ 흥행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일 IP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크라프트론은 최근 AI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AI 기반 NPC 기술 ‘핍지 앨라이’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며, 인조이 등 주요 프로젝트에도 AI 기술을 적극 적용 중이다.

업계에서는 크라프트론이 향후 게임 개발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결하며 AI 중심 기업으로 체질 전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게임 산업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기반 신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 박지원·조정식·김태년 3파전...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시작

첫 권리당원 투표... 내일까지 진행 후보들, 당원 표심 의식 메시지 과반 득표자 없으면 상위 2명 결선

더불어민주당이 11일부터 이틀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시행한다.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후보(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부터 처음으로 반영되는 '당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의원 현장 투표(80%)를 거쳐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경선을 거친 후보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확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현재 152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국회의장이 된다.

이번 선거는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권리당원 20% 룰'이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의원 투표 비율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부터, 기자회견 시간 순), 조정식, 박지원 의원이 각각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은 기존 100%에서 80%까지 줄인 만큼, 강성 당원을 의식한 발언이나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1942년생으로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후보는 지난 4일 "저는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박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등을 내걸

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지난 8일 공개된 정견 발표에서 "정치는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협치가 안 되면 강력한 국회의장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조정식 후보는 지난 8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극한 대치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상을 독려하되 기한을 정해나, 이를 넘기면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한 친명

(친이재명)계 최다선 의원이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태년 후보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해서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상임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봤다"고 했다.

경기 성남 지역구 5선인 김 후보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도 강조하고 있다.

결선투표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상위 득표 2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권리당원 투표는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표를 결선 후보자의 득표에 가산할 계획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민주 "균형발전" vs 국힘 "주거안정"... 6·3 지선 1호 공약 발표

與, 지방주도 성장 위한 5극 3특 체제 재정 확충·지방자치권한 강화 등 담겨 野, 서울·수도권에 '반값 전세' 도입 규제 철폐·신산업성장 통한 경제 도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각각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균형발전', '주거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각 정당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 3특 체제 완성',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행 방법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행정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에서 참석해 있다. /뉴스1

완성 등을 내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생활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육성·성장 기반 구축 ▲청

년밀착지원·국민자산화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기후위기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꼽았다. 국비, 지방비, 주택 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가격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인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에서 각각 9000만원·22%

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제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는 환급형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 개편 및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 내일 보장 ▲직장인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 지원 ▲과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대도약 ▲교육사다리 복원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도 공약에 담겼다. /박경수 인턴기자

# 민주 지도부 강원 집결... 우상호 지원사격

정청래 "대도약 이끌 행운의 열쇠" 우상호 "지방시대 대전환 완성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강원도를 찾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인 우상호는 강원도의 융성과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6·3 지방선

거 우리의 구호이고 깃발"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3년 동안 경제도 '폭망'하고 국격도 떨어지고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정적 제거 등 살벌한 단어가 난무했던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놀라운 케이(K)-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비춰줬던 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과 그 빛과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11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서 열린 강원 공천자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만 잘한다고, 춘천시장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강원지사, 춘천시장, 시군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뚫돌 뚫돌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함께 어울려 맞물려 돌아가는

강원도의 비전도 여러분들께서 가꿔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공약화해서 착불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방식의 상향식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며 "강원도에서 우상호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께서 제시한 길,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보면 남파 우상호가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의 융성과 강원도의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우상호와 함께 대한민국 변영의 길, 강원도 재도약의 길로 함

께 나아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천자대회에는 정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6·3 지방선거 강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방시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완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 지지율이 앞선다고 해서 웃고 다닐 여유가 없다"며 "단 한 명도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후보가 없도록 다 같이 긴장해서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보탰다. /박경수 인턴기자



#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 중동사태 불안에도 '우상향'... 비트코인, 월간 11% 상승

비트코인 1BTC당 8만792달러  
이더리움 한달새 4%, 리플 7% 등  
알트코인 가격도 전반적 상승세  
美-이란, 확전 가능성 하락 영향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선을 다시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11일 서울 강남구 빽셀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상승세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전 우려는 대부분 잦아들 영향이다. 미국 내 금리 인하가 가속 될 것이라 기대감과 예상을 뒤집은 고용지표 등 호재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1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79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0.05% 상승한 가격으로, 6일 연속 8만달러를 상회했다. 월간 가격 상승폭은 10.91%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초 이후 계속해서 8만달러를 하회했는데, 3개월여 만에 8만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이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한달 전과 비교해 4.05% 상승했으며, 시총 3위 리플(XRP)은 7.31% 올랐다. 시총 4위 바

이낸스(BNB)는 7.63%, 5위 솔라나(SOL)는 12.76% 상승했다. 대표적인 'میم코인(유행을 테마로 한 가상자산)'인 도지코인(DOGE)의 월간 가격 상승폭은 17.08%에 달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중동사태'의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며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돼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제 방어적 성격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적 적대

행위'의 종단을 표방한 만큼, 시장에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트럼프가 최근 이란 측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즉각적인 종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이란의 '대표들'이 보낸 답변을 봤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내정자 취임 시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상승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종료된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된 금리 인하 요구에도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왔다. 워시 내정자는 매파적(긴축 선호)인 인물로 평가받지만, 차기 의장 지명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동의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충격'으로 침체됐던 미국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시장 기대감을 키웠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월 미국 고용지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적정 수준)의 흐름을 보였다"라며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이벤트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주요 자산가격의 상승 압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롯데건설

### AAA등급 채권 발행 3000억원 자금 조달

롯데건설이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 금융상품을 자체 개발해 '트리플 A(AAA)'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11일 밝혔다.

3000억원의 유동화증권 중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 3개월로 구성돼 있다.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ABS는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여기에 하나은행의 신용공여(1500억원)와 롯데건설의 예금 운용 등을 통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등급으로 발행됐다. 발행된 채권 등급은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아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을 바탕으로 필요 시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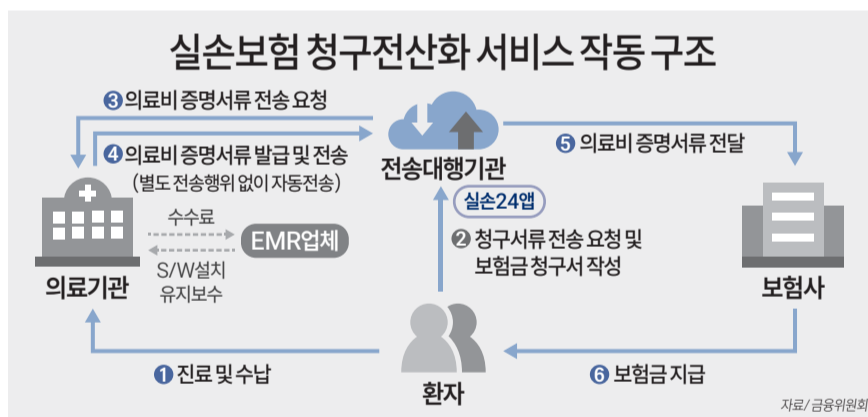
# 보험금 간편청구 확대... 연내 의료기관 90% 참여 목표

금융위, EMR업체 서비스 참여 독려  
참여 미진 업체 과태료 등 제재 논의

금융위원회가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보험금을 비대면으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하반기 내에 80~90%까지 확대한다. 특히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해 참여가 필수적인 EMR(전자무기록)업체의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가 미진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해 서비스의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



준으로 약 3만614개의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연계율은 약 29%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56.3%에 달했으나, 의원 및 약국의 연계율은 26.8%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손24' 앱에 가입한 국민은 377만명이었고, 실손24를 통해 청구완료된 청구 건수는 241만건이다.

정부는 EMR업체의 참여를 위한 서비스 개선 절차가 완료되는 6월부터 총 청구전산화 서비스의 연계율이 최대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80~90%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연계 부진의 요인이었던 대형 EMR업체의 미참여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미참여가 지속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

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사진을 찍어 청구하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의료계와 보험사에도 서류 발급·처리 부담 경감 등으로 이익이 되는 '국민서비스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실손청구 전산화 도입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에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EMR업체 등이 불참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제도개선

#### 실거주의무 예외 허용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이 개선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혜택이 강화되며,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실거주의무 예외 조건이 신설된다. 수급자 사망 이후에도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제도도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만큼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한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가입기간 중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약정 받은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가 1억 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혜택 확대 ▲가입 시 실거주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등이다. 단, 이번 개선 사항은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월 수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확대된다. /안승진 기자

# 금융·유동성 압박... 경기권 아파트경매 급증

지난달 30%가량 늘어난 1097건  
전국 경매건수 3790건 7.2% 늘어

지난달 경기권에서 아파트경매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매매시장에서는 경기권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과는 달리 경매 시장은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에 따른 물량 출회와 이어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법원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경매건수는 379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7.2%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1097건으로 전월 대비 30% 가량 급증하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경매건수가 가장 많았다. 수도권 외곽과 일부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경매 물량이 늘었다. 경매건수는 평택시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92건 ▲김포시 71건 ▲고양시 일산

서구 71건 ▲과주시 68건 등이다.

경기는 매각가율 역시 84.3%로 전월 86.0%에서 소폭 하락했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권에서는 외곽 및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며 "같은 경기권 안에서도 광명·성남 분당·하남·안양 동안·의왕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각가율과 응찰 경쟁이

이어지는 등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경기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이 전월 대비 경매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광주는 136건에서 199건으로, 울산은 59건에서 110건으로 늘어나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서울의 경매건수는 198건으로 전월(211건) 대비 감소했다.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비율인 매각율도 서울은 41.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매각가율은 90% 이상으로 전국 평균치(83.9%)를 크게 웃돌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삼성·애플, 칩플레이션 ‘시험대’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인상 가능성

삼성전자 ‘갤럭시 A37’ 출시 임박  
출고가 조정·사양변화 여부 주목

애플 중저가 라인업 운영전략 손질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37’ 국내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출고가 인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가성비’의 상징으로 통하던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도 가격 인상과 사양 통합, 라인업 재편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갤럭시A37 고객 지원 페이지를 개설한 데 이어 국립전과 연구원으로부터 국내 모델명(SM-A376N) 기준 전파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의 국내 출시를 본격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한다. 통상 전파인증과 고객지원 페이지 개설 이후 2~3주 내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은 갤럭시A37의 국내 출고가에 쏠린다. 최근 메모리와 모바일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른바 ‘칩플레이션’ 영향을 보급형 스마트폰 역시 피해 가기 어려워졌다. 실제 갤럭시A37 미국 출고가는 449.99달러로 전작 대비 50달러 인상됐다. 이에 국내 출고가 역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A37.

/삼성전자

다만 삼성전자가 보급형 제품임에도 전반적인 상품성을 끌어올린 만큼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가능성과 함께 실제 사양 변화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갤럭시 A37은 FHD+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에 5000mAh 배터리, 45W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후면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광각을 포함한 트리플 구성이며 전면은 1200만 화소다. 특히 보급형 제품임에도 AI 기능을 강화했다. 갤럭시A 시리즈 전용 모바일 AI기능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탑재해 구글 ‘서클 투 서치’, 오브젝트 지우개를 지원한다. 방수·방진 등급 역시 IP67에서 IP68로 상향돼 수심 1.5m에서 30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애플 또한 원가 부담에 대응해 중저가 라인업 운영 전략을 손보고 있다. 업

계에서는 애플이 내년 출시가 전망되는 아이폰18 기본형과 아이폰18e 간 일부 부품을 공유하고 기본 모델의 사양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효율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급형 스마트폰 소비자층은 최첨단 AI 기능보다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AI 기능이 핵심 구매 요인인 소비자라면 애초에 플래그십 모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보급형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사양과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삼성, ‘갤럭시 S26 패밀리 페스타’ 확대 운영

31일까지 연장… 신규 이벤트 진행  
자급제 모델 구매자 추가 보상 혜택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패밀리 페스타’를 한층 강화된 혜택으로 확대 운영한다. 갤럭시S26 시리즈가 사전판매 호조로 초반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린 가운데, 후속 판촉 행사까지 연장하며 열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갤럭시 S26 패밀리 페스타’ 행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규 이벤트와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11일 밝혔다.

당초 이달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고객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행사 기간을 3주가량 추가 연장했다.

먼저 ‘갤럭시 S26 시리즈’ 구매 고객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갤럭시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차현정 기자

또 ‘갤럭시 S26 패밀리 페스타’ 운영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구매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사용해 본 후기를 본인의 SNS에 업로드한 고객 중 우수 리뷰를 선정해 ▲CJ 통합 기프트카드 10만원권 2장 ▲스타벅스 e카드 3만원 교환권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갤럭시 S26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상 혜택도 운영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갤럭시 S26 시리즈’ 자급제 모델을 구입한 후,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한 고객이 기존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에 더해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지원한다. 구매처에 따라 6개월 구독료에 해당하는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 LS전선·한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맞손’

설계 연계형 협력모델 구축 방침

LS전선이 한국전력기술과 손잡고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해저케이블 기술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결합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력계통과 케이블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향후 확대되는 부유식 해상풍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LS전선은 한국전력기술과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과 한국전력기술의 EPC 역량을 결합해 전력계통 설계 단계부터 케이블 사양을 반영하는 설계 연계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초기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공동 참여해 전력계통과 케이블 시스템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LS용산타워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MOU 체결식에서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 본부장(오른쪽), 김태근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설계 단계 참여가 수주를 좌우한다”며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설계, 제조, 시공, 운영, 유지보수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에쓰오일, 1분기 흑자전환… 영업이익 1.2조

매출 8.9조… 정유부문 실적 견인  
‘샤힌 프로젝트’ 막바지 단계 들어서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정유제품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쓰오일(S-OIL)이 유가 급등에 따른 재고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조9427억원, 영업이익 1조2311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1분기 매출은 정기보수에 따른 가동률 하락에도 유가 상승 효과가 반영되며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효과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유업은 원유를 구매할 때 정제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판매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유가 높은 제품 가격에 반영됐고 이 과정에서 재고효과와 래고효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사업 부문별로는 정유 부문이 매출 7조1013억원, 영업이익 1조39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1조1044억원, 영업이익 255억원을 냈고, 운할기유 부문은 매출 7370

억원, 영업이익 1666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공급 차질 영향이 이어지면서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재고 관련 손실과 역래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수익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사업인 샤힌 프로젝트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샤힌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진행률은 지난 4월 말 기준 96.9%로, 주요 설비 설치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에쓰오일은 오는 6월 말 기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운전을 거쳐 상업 가동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관희기자 wkh@

# LIG D&A, AI 기반 무인체계사업 확대

자회사 고스트로보틱스 기술 고도화

LIG디펜스엔에어스페이스(LIG D&A)가 자회사 고스트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래 전장에서 정찰·감시·경계 등 무인 플랫폼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스트로보틱스의 기술력을 LIG D&A의 방산 역량과 결합

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고스트로보틱스는 올해 1분기 약 1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기간 LIG D&A는 연결 기준 매출 1조1679억원, 영업이익 1711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세를 보였지만 고스트로보틱스는 아직 손익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IG D&A는 고스트로보틱스를 기존 방산 사업과 연계해 무인체계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사족보행 로봇을 통해 바퀴형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서도 이동할 수 있어 군사 시설뿐 아니라 에너지·통신·데이터센터 등 주요 인프라 관리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사족보행 로봇 외에도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 현대로템, ‘뉴 스페이스’ 시장 공략 본격화

항공대 MOU… 우주산업 전반 협력

현대로템이 우주항공 사업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동력 확보에 나섰다. 대규모 중장기 투자 로드맵에 맞춰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검증과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며 ‘뉴 스페이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8일 한국항공대학교와 서울 송파구에서 우주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해 공동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등 산학 협력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차세대 우주 기술 공동 연구 및 사업화 역량 강화 ▲기술·학술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현장 중심형 미래 인재 양성 등 우주산업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발사체·위성·우주 탐사 등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 기획·수행한다. 현대로템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한국항공대 전문가 그룹이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양측 연구 인프라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기술 교류도 확대한다. 양측은 글로벌 우주산업 동향과 최신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 기술 교류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현대로템의 사업 수요를 반영한 우주 특화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실무형 우주 인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한국항공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검증과 연구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 사업 역량을 강화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현대차그룹, 미래인재 확보 시동... AI·로보틱스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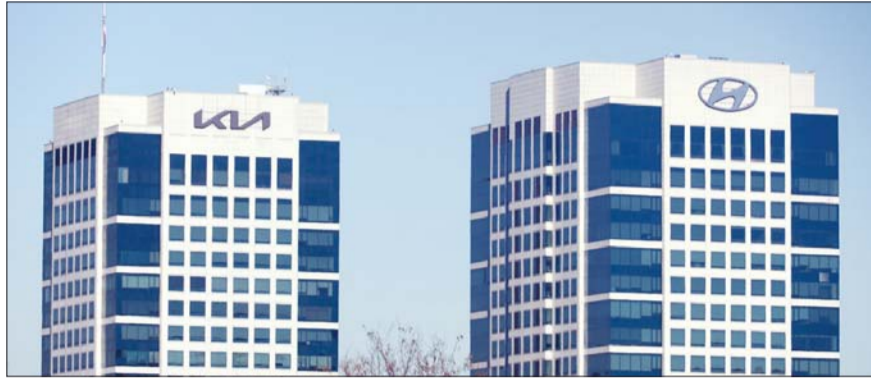
미래차·스마트공장 주도권 정조준  
현대차 제조 SW·AI 경력직 모집  
현대위아 열관리·로봇 인재 확보  
현대모비스 SW교육 채용연계 강화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미래 신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펼치는 분야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7일까지 제조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분야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제조 AI ▲제조 로보틱스 ▲제조 물류지능화 등 총 4개 분야로, 서류 합격자는 6월 중 발표하고 1·2차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경력 채용을 통해 로보틱스, 피지컬 AI 등 미래 신사업을 가속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제조 성능 향상 및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현대위아도 모빌리티 부품과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특히 통합 열관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채용할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열관리 시스템 연구와 로봇 개발, 기획, 영업 등 6개 부문 40여 개 직무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19일 오전까지다. 4년제 대학 졸업자(석·박사 포함)와 내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채용에 나선다. 모바일 로봇과 협동 로봇 개발을 비롯해 글로벌 영업 직군을 포함한다. CES 2026에서 선보인 주차로봇, 물류로봇, 협동로봇, 무인지게차를 개

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업무다. 이와 함께 통합형 드라이브 액셀(IDA), 고성능 댐퍼, 구동 시스템 제어 등 미래 모빌리티 부품 연구원도 대거 채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 공략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분야 교육 프로그램인 '모비우스 부트캠프'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과 협력사 재직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사 취업까지 연계하는 상생형 인재 양성 활동이다.

1기 수료생은 총 270명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준비생과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모

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현대모비스 임직원 SW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사전 진단을 통해 교육생 수준을 파악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 구조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종료 전 일부 수료생은 협력사 취업을 확정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채용 연계를 강화해 상생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수강생들은 자동차 산업용 개방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인 AUTOSAR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인 ASPICE 등 글로벌 차량용 SW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교육 과정을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조 소프트웨어 및 AI 우수 인재 발굴에 총력을 다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여 현대차 미래 산업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중진공

### '기업평가 전문인력' 통해 유망 중소기업 선별역량 강화

34개 지역본·지부 현장 전문가 위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평가 전문인력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선별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중진공은 11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업평가 전문인력(마스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에서 현장 평가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 47명을 '기업평가 전문인력(마스터)'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인력은 석·박사급을 포함해 누적 평가건수 1000건 이상의 기록을 보유한 직원 등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두루 갖춘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마스터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 의지를 함께 다짐했다.

선발한 마스터는 향후 1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평가 비법을 조직 내에 확산하고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평가 경험 전수(멘토링)와 현장 교육(OJT)을 실시해 기관 전반의 평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는 가교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곡성·거창군 등 10곳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

### 중기부, 지역 자생 성장 거점 육성 민·관 합동지원단 현장 상담 착수

전남 곡성군, 경남 거창군 등 10곳이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 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화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하며 성장 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곳은 ▲전남 곡성군(섬진강

기차마을특구) ▲경남 거창군(승강기벨리산업특구)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전북 순창군(장류산업특구) ▲경북 영천시(한방·마늘산업특구) ▲경북 성주군(잡외산업특구) ▲충남 금산군(인삼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양군(고추산업특구) ▲경북 영덕군(대게특구) ▲부산 남구(UN평화문화특구)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 철학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특화특구들을 집중 선정했다.

2005년에 지정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는 장미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섬진강 체험장을 조성한다. 한방약

초산업특구(산청군)는 약초재배 연구단지 조성, 고품질 한방약초 생산·산업화 기반 등을 구축한다. 경북 성주 참외 산업특구는 스마트 참외 시설을 보급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인삼헬스케어특구(금산군)는 연구를 위한 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유통을 위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등), 지방중기청, 중진공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애경케미칼, 스페셜티 소재 힘 신는다

### 자회사 중심 기능성 소재 확대 표면처리제·배터리 신소재 공략

애경케미칼이 이차전지 소재 등 미래 성장축 확대에 나선 가운데 자회사 애경스페셜티도 특수 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그룹 차원의 첨단소재 포트폴리오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자회사 애경스페셜티가 특수 표면처리제와 배터리·반도체 패키징용 신소재, 고기능 코팅제 등을 중심으로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기존 범용 석유화학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라

미드 핵심 원료인 TPC와 이차전지용 하드카본 음극소재 등 첨단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애경스페셜티가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면서 양사의 사업 구조 전환도 맞물리고 있다.

애경스페셜티는 배합, 점도, 접착, 내구성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범용 사업을 넘어 특수 기능성 소재 분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사명을 기존 애경 특수도로에서 애경스페셜티로 변경한 것도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애경스페셜티는 특수 표면처리제를 중심으로 고기능·고부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원관희 기자

## 기보, 파산기업 IP 기술거래 활성화

### 부산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 테크브릿지로 수요기업 발굴

기술보증기금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하나는행과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법원중앙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김중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 옴부즈만

### 규제혁신 포상 후보자 내달 5일까지 접수 연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6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모집 기간을 당초 이달 8일에서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는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2차 모집은 특정 산업이나 직군에 국한하지 않고 신산업, 지역 현장 애로 등 보다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묵묵히 규제 개선에 앞장서 온 숨은 유공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했다.

특히, AI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관행이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풀어낸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포상은 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소하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에는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기준 제정',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발굴' 등의 우수 사례에 포상이 돌아갔다. 올해는 연장된 기간 동안 더욱 다채로운 분야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 신청 요건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진흥부,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보조금 경쟁 그만... 통신3사, 장기고객 테마파크로 모신다

KT, 에버랜드로 가족고객 초대  
KT위즈 흥경기 관람권 응모 등 제공  
SKT, 에버랜드 숲캉스 데이 열어  
LG U+, 춘천 레고랜드 마라톤 행사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마케팅 축소  
해킹사태 이후 이탈고객 방어 집중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장기 고객, 이른바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부담이 커진 데다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유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3사가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청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기존 가입 기간은 5~10년이다. 인터넷·IPTV를 결합했거나 자사 통신 회선을 꾸준히 사용한 이용자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

KT는 에버랜드에서 열리는 '초대드림'에 가족고객을 초대하고, KT위즈 흥



SKT 'T 장기고객 프로그램' 숲캉스데이. /SK텔레콤

경기 관람권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T장기고객 프로그램'을 통해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숲캉스 데이를 연다. LG유플러스는 이달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 '레고런'을 개최한다.

지난해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번 호이동 경쟁이 치열했다. 통신사들은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해 과도한 비용(공시지원금)을 마케팅 비용에 들였다. 여기에 일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성지 마케팅'을 통한 할인

경쟁을 부추겼다. 이에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은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이같은 기조가 축소된 배경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있다. KT는 2030년까지 500MW급 신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예상 비용은 최대 10조원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조원을 들여 AI 사내회사(CIC) 조직을 출범했다. B2C AI 에이닷과 올산 AI 데이터 센터(AIDC) 등 사업을 포함한다. LG유플러스도 연간 5000억대를 투자해 익시오와 파주 AIDC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SKT와 KT 해킹 사태 이후 이탈 고객을 방어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LG유플러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19.6%로 2위 사업자인 KT(23.3%)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이후 40%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무선 결합상품 확대도 장기 고객 전략을 강화 배경으로 꼽는다. 인터넷·IPTV를 결합해 사용하는 가입자 증가에 따라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기존 고객 유지가 중요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중 IPTV 점유율은 2021년 54.13%에서 2025년 59.11%로 약 9% 증가했다.

다만 장기 고객 혜택 가운데 데이터 쿠폰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 중심의 정액제 구조로 재편되면서 추가 데이터 제공 혜택의 체감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지출 통제는 꾸준했지만 데이터 센터와 같은 수천 억대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히 지출을 자제하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KT, 도쿄일렉트론코리아에 재생에너지 공급

직접PPA로 전력 15MW 우선 공급  
이후 50MW까지 확대 예정

KT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주요 사업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국내 화성·용인·성남 등에 R&D 센터를 운영하는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의 한국 법인이다.

KT는 오는 9월부터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화성사무소와 반도체 제조 공정 연구개발 센터 등 주요 사업장에 직접전력 거래계약(직접PPA)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

직접PPA란 KT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KT 같은 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직접PPA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했다.

KT는 지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지위를 승인받았다. 먼저 전력 15M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5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고객사 수주와 전력 안정

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풍력·태양광과 같은 전력을 공장 운영에 활용하거나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선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기술총괄 부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화성에서부터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이번 협약은 당시의 지속가능성 로드맵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온실가스감축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

## 네오위즈, 매출 1014억... 모바일·IP 성과

1분기 영업이익 70억

네오위즈가 모바일 게임 성장과 핵심 IP 흥행에 힘입어 1분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11일 네오위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10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4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의 효과가 반영되며 155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모바일 게임과 핵심 라이

브 IP의 안정적인 성과가 견인했다는 평가다. 모바일 게임 부문 매출은 5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전 분기 대비 8% 증가했다. '브라운더스트2'는 2.5주년 이벤트 일부 매출 반영과 1000일 기념 이벤트 흥행 효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웹보드 게임 역시 규제 완화 영향으로 이용자당 평균 결제액이 반등했다.

PC·콘솔 부문 매출은 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다만 전 분기 대비로는 14% 감소했다. 'P의 거짓'은 글로벌 할인 이벤트 효과로 판매 흐름을 유지했고, '세이프 오브 드림즈'도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한 이후 안정적인 판매세를 이어갔다. /최빛나 기자

## 데브시스터즈 무보수 경영·희망퇴직 고강도 전사 쇄신 돌입

데브시스터즈가 실적 부진과 시장 침체 대응을 위해 무보수 경영·희망퇴직·AI 조직 전환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선다.

11일 데브시스터즈는 수익성 악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경영 쇄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쇄신안은 게임 시장 경쟁 심화와 라이브 서비스 운영 부담 확대, 신작 성과 부진, 기존 매출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수익성과 성장성 중심의 사업 재편과 조직 효율화, 재무 안정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진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보수 삭감에 나선다. 조길현 대표를 비롯해 이지훈·김종훈 이사회 공동의장은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무보수 경영을 결정했다.

회사는 대표이사 직속 '비용 관리 TF'도 신설한다. TF는 전사 자원 배분과 비용 집행을 상시 점검하며 비용 구조 효율화 작업을 맡는다. /최빛나 기자

## 넥슨, AI·AX 중심 게임개발 트렌드 공유

오는 19일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넥슨이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026'에서 AI·AX 중심 강연을 확대하며 게임 개발 최신 트렌드 공유에 나선다.

11일 넥슨은 게임업계 대표 지식공유 행사인 NDC 2026 오프라인 참가객 모집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NDC 2026은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과 일대에서 열린다. 게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21일까지 일자별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게임 기획과 프로그래밍, 운영, 프로그래밍 등 게임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총 51개 세션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AI 분야 강연을 대폭 확대했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활용이 게임 개발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에 맞춰 실제 개발 사례와 실무 경험을 공



2026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이미지. /넥슨

유하는 세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기대작 '아크 레이더스' 개발사인 엠바크스튜디오는 AI·머신러닝과 데이터, 아트 분야 개발 경험을 주제로 총 3개 강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넥슨과 크래프톤의 AX 전환 경험을 다루는 대담 세션 등 업계 전문가 토론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대표 세션으로는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와 이경혁 게임제너레이션 편집장이 참여하는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 강덕원 넥슨 그룹장과 임경영 크래프톤 VP, 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참여하는 '넥슨과 크래프톤의 AX 여정' 등이 예정됐다. /최빛나 기자

## LG U+,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 확대

밀리웨이와 용인특례시에 적용

LG유플러스가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 도로 관리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도로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 밀리웨이와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을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은 도로 위 포트홀과 노면 파손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수 작업까지 연결하는 도로관리 플랫폼이다. 오는 6월부터 용인시내 도로 위 철물 파손이나 동물 사체 처리 등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전국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한다.

핵심 기술은 초정밀측위(RTX)다.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위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한다. 기존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은 오차가 최대 15m까지 발생한다.

시내버스와 공무차량 등 차량에 단말을 설치해 고정형 폐쇄회로(CCTV)보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이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정확도와 관제 범위가 넓다. 카메라로 특정 지점만 감시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로 전체를 탐지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용인시의 도로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했다. 도로 파손으로 발생한 공익 시설 배상금도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

# 삼전·하이닉스 신고가 행진... “더 간다” vs “고점 경계”

삼전 28만원·하이닉 194만원 넘기도  
D램·낸드플래시 가격 급등 영향  
증권사들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가능성도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2025년 8월에 삼성전자 주식만 5억원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20억원이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한 회계법인 소속 직장인 A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재미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다. 외국인인 셀 ‘반도체’에 나서고 있고, 반도체 고점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33% 오른 28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8만 8500원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급등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194만 9000원을 찍었다. ‘190만 닉스’를

뚫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188만원(11.51% 상승)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장밋빛 실적 전망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D램과 낸드플래

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50%, 45% 상승할 것으로 봤다.  
주가가 치솟는 만큼 재미들의 고민도 커졌다. 이제 주식을 팔아야 할지, 더 보유해야 할지를 놓고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고 외친다. 한동

희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50만원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메모리 재평가는 여전히 초입에 불과하다”라며 “주가 랠리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P/E)은 각각 6.0배와 5.2배 수준이다. 한국 메모리에 대한 매수주체 확대를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 부각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했다.  
노무라증권은 4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93만원에서 234만원으로 높였다. 같은 날 JP모건 역시 목표주가를 15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렸다. 골드만삭스는 4월 24일 목표주가를 기존 13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부터 범용 메모리의 가격 급등 흐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PC 및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가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의 메모

리 재고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시작해 올해 3분기부터는 범용 메모리의 가격은 전분기 대비 한자릿수 수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날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한단계 하향, 목표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를 축소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투자 의견에는 낙관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2024년 국내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보고서 74만 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 의견, 목표주가, 이익예측치의 낙관적 편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2014년 이전에는 73% 수준이던 매수 및 적극 매수 비중이 2015년 이후 91%로 증가하는 등 낙관적 편향이 강화·고착화됐다”며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반도체 상승·월배당 다 잡는다”... 삼성운용 ETF 출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  
코스피200 콜옵션 프리미엄 활용  
연 9% 수준의 월 분배금 목표



(왼쪽부터)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박성철 ETF운용1팀장, 임태혁 ETF운용본부장(상무)이 11일 삼성자산운용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의 성장성과 안정적인 월배당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코스피 200 위클리 콜옵션을 활용해 월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집중 투자하고,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월말 분배금을 지급하는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를 12일 상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대표 반도체 지수인 ‘KRX 반도체’의 T

R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 주식에 100% 투자하면서, 이 중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산의 절반인 약 50%를 넘게 집중 투자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대장주의 주가 상승 랠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패시

브 운용 방식을 채택해 개별 종목을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성철 삼성자산운용 ETF운용1팀장은 “인공지능(AI) 산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목 현상의 해결사가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라며 “대한민국 반

도체 산업을 상징하는 두 대장주와 시장의 핵심 종목들을 패시브 구조로의 설계를 통해 저비용으로 온전히 담아내고, 개별종목 옵션 대비 압도적 유동성을 지닌 코스피200 옵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월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표주식에 100% 투자하면서, 타겟 월 분배금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피 200 위클리 콜옵션을 30%만 고정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코스피200 위클리 콜옵션 고정 매도를 통해 받은 프리미엄을 활용해 연 9% 수준의 안정적인 타겟 월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프리미엄 수익은 반도체 주식에 자동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미래에셋운용 “AI 승자는 생태계” 구글 중심 ETF 선택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인다. 엔비디아 중심의 기존 AI 투자에서 벗어나 구글과 광통신 인프라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구글 본체뿐 아니라 AI 시대 핵심 수혜 기업까지 한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타이거’를 통해 웹세미나를 열고 오는 12일 상장하는 ‘TIGER 구글밸류체인 ETF’의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구글은 자체 반도체인 TPU를 시작으로 트래이-랙 인프라, 광학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링, AI 서비스 플랫폼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빅테크 가운데 유일한 기업”이라며 “최신 AI 모델인 제미니 3.0 프로 역시 엔비디아 GPU 없이 100% 자체 TPU 인프라로 학습·추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칩 하나나 모델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가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ETF는 구글과 브로드컴을 합쳐 40% 이상 비중으로 담고, 루멘타-이노라이트·씨에나·마벨 등 광통신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삼성전자도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사로 약 3% 비중으로 편입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산업의 병목이 가속이 확보에서 데이터 연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광통신 기술이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글의 AI 수익화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8%, 당기순이익은 81.2%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허정윤 기자

## 전쟁 변수에도 재미들 웃었다... 주식 투자자 80% 수익 실현

투자자 평균 수익액 848만원  
삼전, 가장 많은 수익·손실 종목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에도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11일 자사 고객중 지난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80%가 수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수익을 낸 투자자의 평균 수익액은 848만원이었고 손실을 본 고객의 평균 손실액은 496만원이었다.  
월별로는 1월 평균 수익액이 692만원

으로 가장 컸고 2월 594만원, 3월 398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쟁 발발 이전(1, 2월)과 비교하면 전쟁이 시작한 후인 3월 수익액은 감소했다.  
반면 손실액은 3월이 449만원으로 가장 컸고 1월 367만원, 2월 267만원 순이었다.  
1분기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에게 수익과 손실을 내게 한 종목은 모두 삼성전자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를 매도한 고객 중 수익을 낸 고객은 평균 714만원을 얻은 반면에 손실을 본 고객은 평균 173만원을 잃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고객에게 수

익을 안겨준 종목은 SK하이닉스(평균 594만원), 두산에너빌리티(206만원), 현대차(341만원), 한미반도체(254만원) 순이었다.  
손실 경험 고객이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137만원), SK하이닉스(246만원), 두산에너빌리티(59만원), 한화솔루션(8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준 종목은 우리기술(평균 236만원)이었다. 에코프로(250만원), 휴리스(140만원), 알테오젠(209만원), 제주반도체(104만원)가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많은 고객이 손실을 보게 한 종목은 휴리스(70만원), 우리기술(57만원), 에코프로(104만원), 알테오젠(258만원), 현대무비스(90만원) 순이었다.  
1분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성별 수익을 보면 남성 평균 739만원, 여성은 386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1873만원, 60대 111만원, 50대 732만원, 40대 398만원, 30대 221만원, 20대 14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27만명 증가세 서비스·고령층 늘고, 청년 줄었다

고용부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  
4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 유지  
제조업 11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60세 이상 가입자 증가분 7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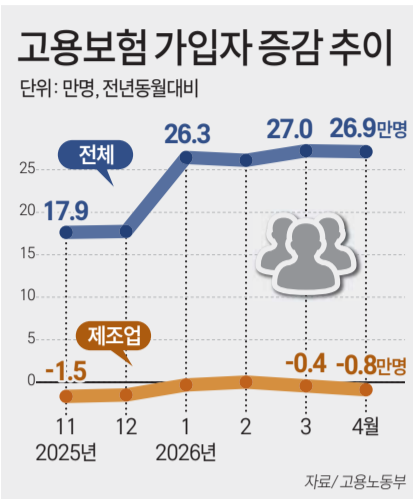
올해 들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가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고령층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감소세가 유지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8만 4000명(2.6%)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업(11만 7000명), 숙박·음식점업(5만 4000명), 사업서비스업(2만 6000명)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는 8000명 줄어 감소폭이 전보다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관련 업종은 소폭 늘었으나, 금속가공과 자동차 제조업 등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2023년 10월부터 31개월째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역시 업황 불황의 여파로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령별 고용 시장도 명암이 뚜렷하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보다 20만 6000명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사실상 고령층이 고용 시장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6만 4000명 줄며 2022년 9월 이후 44개월째 감소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인구 감소와 2024년 5월 이후 청년 고용률 하락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40대 가입자 또한 7000명 감소했다.

노동 시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구인배수(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5를 기록해 전년 동월(0.43) 대비 소폭 개선됐다. 노동부는 다만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보지 않는다. 천 과장은 "0.45라는 수치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졌지만, 연간 평균치인 0.56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며 "장기간 감소 흐름을 고려하면 아직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은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2.7%) 줄었으며, 전체 지급액은 1조 109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0억원 감소했다. 이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송미령 장관, 초등학교 과일간식 현장점검

농식품부, 위생·안전 중요 강조

초등생이 학교에서 섭취하는 과일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올해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시행에 따른 점검이다. 과거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는 이 사업은, 4년 전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안성의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및 광덕초를 찾았다. 그는 현장 배식에 참여하고 과일간식 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폈다.

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과일간식용 컵과일의 선별·세척·절단·포장 등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그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인 만큼,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준수와 콜드체인 유지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또 안성광덕초 돌봄교실을 찾아 직접 컵과일을 만들고 배식에도 참여했다.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

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단순한 간식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2022년 기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후 현장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에 따라 이재명 정부 먹거리 지원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 재개됐다. 지난 4월부터,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 중인 1~2학년 약 60만 명(계획)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T, AI 전환 속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 나선다

조직·경영분과 혁신자문위원회 열어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구축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낸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조직·경영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aT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생산·수출분과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 농수축산업 생산 연계 지원 및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aT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조직·경영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aT

조직·경영분과 회의에서는 공사의 AI 전환전략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대표 과제의 추진 현황에 공유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의 AI전환 전략

의 추진체계, AI를 공사 경영·사업에 반영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AX(AI전환) 대표과제인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구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K 페스티벌 종합행사인 '케이콘(K-CON) 재팬'연계 'K라이프스타일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현지 바이어가 우리기업 제품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코트라

## 日 'K-라이프스타일' 열풍 코트라, 1780만弗 수출상담

(역대 최대 규모)

도쿄서 케이콘 연계 B2B 수출상담회  
국내 중소기업 48곳, 79개사와 일대일 상담  
수출 초보 14개사 진출 교두보 마련도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교류 무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K-팝 문화와 산업이 결합한 대규모 수출 마케팅 행사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K-페스티벌인 '케이콘(K-CON) 재팬'과 연계해 'K-라이프스타일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48개사가 참여해 현지 유력 바이어 79개사와 400건이 넘는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780만 달러의 수출 MOU가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CJENM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컨벤션인 '케이콘'과 연계해, 한류 콘텐츠로 형성된 현지의 후호적 소비 트렌드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트라는 CJENM,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안착을 지원했다.

특히 코트라는 B2B 상담 이후 바이어들을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B2C 관측전인 'K-컬렉션'에 초청했다. 바이어가 현장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출

계약의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은 약 31%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화장품 분야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며, 올해는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만 대일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열기는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K-뷰티 관련 일부 기업은 행사 시작 전 상담 예약이 초기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패션, 생활용품, 식품 등 분야별 유망 기업들이 고르게 참여하며 K-웨이브가 특정 품목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 14개사 또한 협력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코트라는 이번 상담회가 초기 단계 기업들에게 일본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은 K-팝과 K-드라마가 견인한 한류가 기존의 일시적 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자리 잡는 단계로,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문화·산업 연계형 수출 마케팅으로 지원 효과를 높이고, 우리 K-소비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해수부-교육부, 동남권 해양 전문인재 양성

'5극3특' 국토균형발전 일환

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조를 추진한다. 두 부처는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축'에 힘을 모은다.

해수부와 교육부는 11일 부산대에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5극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수도권 1극체제에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체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협약 체결 직후에는 간담회를 갖고, 조선-해양 분야 관련 대학·기관 등 현

교육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첨단화·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자원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속선 해양전문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총 1200억원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사립대가 조선-해양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키운 인재가 동남권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대학과 협력해 조선-해양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사업과 연계해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GORILLA KAF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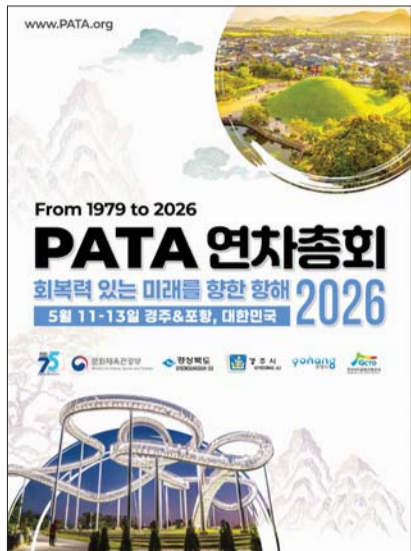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경북도 'PATA 연차총회'... 지역 연계 국제회의 모델 제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내일까지 포항·경주 일원서 진행  
APEC 이후 성과 지속·확대 노력  
지역 마이스 산업·관광 활성화 기여



PATA 연차총회 포스터.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포항시, 경주시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포항·경주 일원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는 195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 관광기구다. 국내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주요 관광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 이전부터 성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PATA 연차총회 유치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여섯 번째로 연차총회 유치가 성공했으며, PATA 연차총회 최초로 포항·경주 두 도시 공동 개최를 성사시켰다.

도는 이번 공동 개최가 수도권 단일 도시 중심 국제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연계형 국제회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총회에는 국내외 관광 관련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업계 종사자 등 35개국 500여 명이 참석해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여정(Navigating Towards a Resilient Future)'을 주제로 글로벌 관광 산업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포항 라한호텔에서 청년 심포지엄과 교육·산업 라운드테이블, 개회식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책 포럼과 지부회의, 컨퍼런스 등이 이어진다.

특히 둘째 날 저녁에는 APEC 경제 전시장과 경주타워 일원에서 갈라디너와 전통공연, 대한민국명장 한복패션쇼 등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컨퍼런스와 주제별 살롱 세션이 이어지며 폐회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북 관광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경주·안동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과 포항 환호공원 식물원, 스페이스워크 체험은 물론 APEC 정상과 고위 인

사들의 동선을 따라가는 특별 관광코스도 마련된다.

경북도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잠재적인 인바운드 관광객이자 효과적인 홍보 채널이 될 것으로 보고, 도내 역사문화자원과 해양·도시경관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이번 총회를 포스트 APEC 관광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고 프로그램 구성과 초청, 수송, 숙박, 운영인력, 부대시설 조성 등 행사 전반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이어 2026 PATA 연차총회 개최는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회의 유치에 힘써 지역 마이스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 광주 변화과정 조명 기획전

광주도심의 발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2일부터 8월9일까지 광주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전 '광주, 도시가 되어 온 시간'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896년 광주가 전남도청 소재지로 지정된 지 130주년,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광주지역의 주요 도로와 건물, 하천, 주거지 변천사를 사진·지도·엽서·기록물 등을 통해 보여준다.

/광주=양수영 기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e스포츠팀 'GC부산' 재창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e스포츠 지역 연고팀인 'GC부산'을 재창단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활동 중단 이후 5년만의 복귀다. 팀에는 서정(SeoEunSeol), 한준희(Romantic) 등 베테랑과 박민우(Hare), 주준영(Nizika) 등 유망주가 합류했다.

GC부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e스포츠 리그'(2026KEL)에 참가해 복귀전을 치른다.

GC부산은 전국 19개 지역 팀이 참가하는 2026KEL에서도 총상금 1억5000만원 중 가장 큰 상금(1억원)이 배정된 '이더널 리턴'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개막전은 22일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포항시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 '지역특화 청년 사업' 공모 선정 지역 자원 활용 체류형 프로그램

포항시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특화 청년 사업' 공모에 선정돼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포항의 해안과 숲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정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구조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는 청년기획단 '브릿지 메이커스'는 오는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아

이디어 제안과 현장답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브릿지 메이커스의 기획과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북 청년 대상 트레킹 프로그램 '해파랑 원정대' ▲지역 대학생 특화 해양레저 프로그램 '액티비 원정대' ▲정책 거버넌스와 네트워킹을 결합한 '웨이브 캠프' 등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참여 대상을 포항 청년에서 경북 청년까지 확대하고, 경북도 청년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역 단위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포항의 로컬 자원을 청년들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 포항을 중심으로 한 '포항형 관계 인구'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영덕군, 괴시리 전통마을 열린관광 확대

### 보행 환경·안내 체계 정비

영덕군은 '2024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괴시리 전통마을 일대의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동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과 안내 체계를 정비한 사업이다.

마을 입구와 주요 관람 구간에는 황토콘크리트 보행로가 조성됐다. 기존 비포장 길과 단차 구간을 개선해 휠체어와 유모차 이동 부담을 줄였다. 일부 경사 구간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했고 장애인 주차장에는 경사로를 마련했다.

영덕군은 전통 경관 보존에도 중점을 뒀다. 한옥 구조와 담장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 동선을 정비해 괴시리 특유의 분위기를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광 정보 접근 체계도 강화됐다. 시



영덕군 괴시리 전통마을 항공 전경. 고택과 한옥 지붕이 마을 전체를 따라 이어지며 전통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점용 팸플릿을 제작했고 마을 곳곳에는 촉지음성 안내판과 촉각 안내판을 설치했다. 점자와 음성 인식 기능을 함께 적용해 문화유산과 마을 역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GIST, 화재 위험 낮춘 전고체전지 개발

### 이온으로 계면 보호막 만들어

전고체전지 내부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보호막을 만들어 화재 위험은 낮추고 수명은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개발됐다.

9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기술원 김상륜 교수 연구팀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일본 교토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소를 포함한 특수 이온(BH4-)이 전고체전지 내부에서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보호층을 형성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온이 계면 보호막을 만들면서도 리튬 이온 이동은 원활하게 유지해 배터리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화학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고체전해질에 BH4- 이온을 도입한 뒤 X선 광전자 분광법(XPS)과 비행시간이차이온 질량분석법(TOF-SIMS) 등을 활용해 충·방전 과정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BH4- 이온이 충·방전 초기 단계에서 리튬 금속과 먼저 반응해 안정적인 보호층을 형성하고, 이후 전해질과 리튬 금속 간 직접 반응을 줄여 계면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전류 조건에서 1000회 이상 충·방전을 반복한 실험에서도 충·방전 효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해 장기 안정성도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전고체전지의 수명 향상은 물론 발열과 화재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신경주역세권 내 공원·녹지 관리 강화

### 경주시, 2억4800만원 투입

경주시가 신경주역세권 내 공원과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이번 사업은 KTX·SRT 경주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신경주역세권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지는 건천읍 화천리 2699-3번지 일원으로, 시는 총사업비 2억48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원·녹지 7만629㎡를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 면적은 ▲역사공원 1만2322㎡

▲근린공원 7982㎡ ▲소공원 809㎡ ▲녹지대 4만9516㎡ 등이다.

경주시는 예초와 잡초 제거 등 잔디관리를 비롯해 공원 내 수목 및 가로수 관수 작업, 계류시설 세척·정비, 노후 데크시설 도색 등을 추진한다.

특히 KTX·SRT 경주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신경주역세권이 경주의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하는 만큼,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가 도시 이미지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단순 환경정비 수준을 넘어 생활밀착형 녹지 관리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 영양군

#### '산나물축제' 60억 경제효과

영양군의 대표 축제인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가 4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을 테마로 진행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총 12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약 60억 원의 경제적 과금 효과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국내 편의점, 36년만에 첫 감소 상위업체 중심 시장재편 본격화

업계 상위 호실적... 하위권 격차  
물류 효율성·차별화 상품 등 영향  
“단순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은 끝”



GS25 신성강화형 매장.



CU 모델이 '버터떡'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점포 수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며 시장이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 1·2 위인 CU와 GS25는 올해 1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하며 양강 구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대규모 점포망에 기반한 물류 효율성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 역량이 실적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하위권 업체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1204억 원, 영업이익은 38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68.6% 급증한 수치다. BGF리테일은 '두쫀쿠', '버터떡' 등 트렌드를 반영한 디저트 라인업의 흥행과 'get모닝' 시리즈 등 고물가 맞춤형 전략상품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면 라이브러리 등 특화 매장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이 효과를 거두며 기존점 매출 성장률 2.7%를 달성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역시 수익성 중심의 운영 전략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 GS25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조 863억 원, 영업이익은 23.8% 증가한 213억 원을 기록했다. 기존점 매출 증가율은 4.

7%로 내실을 다졌으며, 신선 강화형 매장이 일반 매장 대비 1.6배 높은 일평균 매출을 올리며 장보기 수요를 성공적으로 흡수했다. 또한 외국인 결제 매출이 전년 대비 73%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양사의 매출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CU와 GS25의 매출 격차는 약 8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약 370억 원이었던 격차가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결과다. 이러한 흐름은 점포 수 격차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CU 점포 수는 1만 8711개로 전년 대비 253개 증가한 반면, GS25는 점포 효율화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곳을 정리하며 1만 8005개로 107개 감소했다. 700개 이상 벌어진 점포 수 차이가 매출 역전 가시화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산업이 규모의 경제에 따라 우량 업체로 쏠리는 현상이

고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4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 24)의 전체 점포 수는 2024년 5만 4852개에서 2025년 5만 3266개로 처음으로 꺾였으나, 이 감소세는 대부분 하위권 업체에 집중됐다.

편의점 업계 성수기인 2분기 실적에서는 5월 황금연휴 기간의 외국인 매출과 함께 지난달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이 변수로 남아있다. CU는 파업 여파로 곁몰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점포당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위로금과 폐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은 이제 끝”이라며 “한정된 입지 안에서 점포당 수익성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며, 결국 제조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한 상위 업체들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케이콘 재팬 2026



KCON JAPAN 2026 비비고 부스 전경

/CJ제일제당

### CJ제일제당, 비비고만두·미초 세트 흥행

비비고 부스 운영... 연일 인산인해  
“日 시장 지배력 더욱 높여나갈 것”

CJ제일제당이 일본 최대 규모의 K-컬처 축제에서 글로벌 전략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현지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현지 생산 체제 구축 이후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일본 시장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된 '케이콘 재팬(KCON JAPAN) 2026'에서 비비고 단독 부스를 운영, K-푸드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인기 K-팝 아티스트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과 협업한 '해피 비비고데이' 콘셉트로 꾸며졌다. 부스 입구에 설치된 대형 케이크 오브제는 현지 MZ세대의 SNS 인증샷 명소로 등극하며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브랜드 체험을 넘어선 실질적인 시식 성과도 두드러졌다. 비비고 푸드트럭 존에서는 일본 내 전략 상품인 '비비고만두'와 건강 음료 '미초' 세트를 선보였으며, 행사 기간에만 약 2만 개의 제품이 소비됐다.

현지 생산의 이점을 살린 제품 경쟁력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올해 3월 선보인 현지 특화 신제품 '비비고 만두교자'는 출시 첫 달 매출 7억 원을 기록했으며, 단숨에 6000여 개 점포에 입점했다. 이러한 공세에 힘입어 비비고 만두는 지난 3월 일본 시장 점유율 10%를 처음으로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시장 내 비비고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K-푸드의 확장성을 재확인했다”며 “현지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한 공급 안정성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일본 식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 호조... 영업이익 70% ↑

1분기 매출 3.6조, 영업이익 2529억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사업 순항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롯데쇼핑이 백화점 사업 호조와 해외 사업 성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 회복과 베트남 등 해외 점포 성장세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가운데, e커머스와 홈쇼핑 부분의 수익성 개선도 이어지며 전 사업부 체질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롯데쇼핑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5816억 원, 영업이익 252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70.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역시 143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번 실적 개선은 핵심 사업부인 백화점이 주도했다. 백화점 사업부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8723억 원, 영업이익은 47.1% 증가한 1912억 원으로 집계됐다.

본점과 잠실점 등 대형 점포의 집객력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매출을 전년 대비 92% 끌어올린 점이 실적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외 사

업 또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49억 원)을 경신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이 28%, 인도네시아가 7% 성장하는 등 전점 총매출이 신장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해외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신장한 355억 원, 영업이익은 268.7% 급증한 76억 원을 기록하며 전사 수익성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마트와 e커머스 부문은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 마트 사업부는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매출 1조 5256억 원, 영업이익 338억 원을 달성하며 수익 중심의 체질 개선을 이어갔다. 해외 사업 또한 베트남을 중심으

로 전 상품군에서 고른 매출 호조를 보이며 매출액 4850억 원, 영업이익 25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와 16.8% 신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1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e커머스 사업부는 매출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패션과 뷰티 등 핵심 카테고리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영업손실 58억 원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적자 폭을 축소했다. 반면 슈퍼 사업부는 매출 3058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은 22억 원에 머물며 30.7% 감소했다.

연결 자회사들은 업종에 따라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홈쇼핑은 고수익 상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영업이익이 118.6% 급증한 264억 원을 기록했다. 컬처웍스는 국내 흥행작 효과로 관람객 수가 49.2% 증가하며 영업이익 7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가전 시장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매출이 6.1% 감소한 4969억 원에 그쳤으며, 영업손실은 147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김서현 기자

### 삼양식품, 'K-매운맛' 스펙트럼 확장

‘한강 편의점’ 테마 부스 구성



불닭마트 부스 전경.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일본 내 K-컬처 팬들을 대상으로 '불닭' 브랜드의 매운맛과 한국 특유의 편의점 문화를 전파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된 '케이콘 재팬(KCON JAPAN) 2026'에 참가해 운영한 브랜드 체험 공간 '불닭마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삼양식품의 현지 법인인 삼양재팬은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한강 편의점'을 테마로 부스를 구성했다.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울림 일본 출시를 앞둔 신제품 '스 와이시 불닭볶음면'의 최초 공개였다. 이 제품은 불닭 특유의 감칠맛나는 매운맛에 캐러멜의 달콤함을 가미해 '단짠(달고 짜고)'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별사탕 토핑으로 독특한 식감을 구현하는 동시에, 기존 제품보다 매운맛 수위를 낮춰 현지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다.

이번 삼양식품의 행보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K-매운맛'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매운맛에 신중한 일본 소비자들을 겨냥해 당도를 높이고 식감을 번주한 현지화 모델을 내놓은 것은 불닭 브랜드의 생명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삼양재팬은 '케이콘 2026' 한정판 세트를 통해 불닭볶음면과 맵(MEP) 등 주력 라인업을 과격적인 구성으로 선보였다.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는 '불닭 포테이토칩 4가지 치즈맛'의 샘플링과 SNS 인증 시 오리지널 스티커를 증명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하며 집객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신원선 기자

# 큐라클, 1조 규모 기술수출... K-바이오 턴어라운드 본격화

메멘토 메디슨에 'MT-103' 수출 추가 적응증 개발 가능성도 포함 기술 반환 아픔 딛고 체질 개선

한때 기술 반환의 쓴맛을 보며 기업 가치 급락을 겪었던 큐라클이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K바이오 '반등' 기반을 다진다. 후기 임상 역량, 상업화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해 R&D 동력을 유지하는 '실전형 바이오'로 체질을 개선하는 모습이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큐라클은 항체 전문기업 맵틱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망막질환 치료 후보물질 'MT-103'을 미국 바이오 테크 메멘토 메디슨에 최대 10억7775만 달러(약 1조5636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계약 내용은 개발 및 허가 마일스톤 8225만 달러, 상업화 마일스톤 9억8750만 달러에 대한 권리다. 계약 대상 지역은 글로벌이고 망막질환 외 추가 적응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증 개발 가능성도 포함한다. 이번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큐라클과 맵틱스가 50:50으로 배분해 수령하며 선급금은 800만 달러(약 116억원)다.

해당 선급금은 전체 계약의 약 0.7% 수준이다. 다만 메멘토 메디슨은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및 투자사가 특정 자산의 빠른 상업화를 목표로 설립한 뉴코(NewCo) 형태 기업이다. 뉴코의

신약개발 추진 방식은 전문 인력 구성, 임상 중심 의사결정, 소수 파이프라인에 대한 높은 집중도와 효율성 등이 특징이다.

큐라클은 빅파마 대신 뉴코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신약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인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큐라클은 과거 기술 반환 이슈를 겪

은 바 있다. 2024년 5월 프랑스 페아오 폰노베이션으로부터 당뇨병성 황반부종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 후보물질 '리바스테라트(CU06)'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 기술 반환 이유는 연구개발 우선 순위에서 단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후 큐라클은 자체적으로 후속 전략을 마련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팅을 진행하는 등 약물 경쟁력을 지속 입증해 왔다.

또 리바스테라트는 이미 2024년 4월 미국 임상2a상을 완료했다. 해당 임상의 시력 개선 지표에서 경구용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로 효과를 보였다. 현재는 임상2b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생체흡수율을 개선한 신규 제형도 함께 개발한다.

'MT-103' 역시 약물 우수성이 확인됐다. 큐라클은 지난 3~7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안과학회 'ARVO 2026'에서 MT-103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MT-103은 Tie2 활성화 항체와 VE

GF 항체를 결합한 이중 항체다. 혈관 안정화를 유도하는 수용체인 Tie2를 활성화해 혈관을 강화하고, 혈관내피성장인자인 VEGF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생성을 막는 기전을 갖췄다.

큐라클은 이러한 R&D 역량에 더해,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재무 불안정성 해소에도 나섰다. 지난 2월 원료의약품(API) 전문기업 대성팜텍을 흡수합병했다. 큐라클은 대성팜텍을 통해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적인 캐시카우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매출 요건 부담을 덜어낸다는 복안이다.

유재현 큐라클 대표는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자들이 MT-103 개발에 집중 투자해 이들의 자본력이 개발 및 상업화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약개발의 전 주기적 역량을 증명하고 마일스톤 유입을 극대화해 큐라클이 K바이오 대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글로벌 투자 몰린 GC셀, AB-101 임상 추진

아티바, 보통주·선납 워런트 발행 약 3억달러 마련... 상업화 속도

지씨셀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핵심 파이프라인을 후기 단계 임상으로 진입시키며 'K세포치료제'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

지씨셀은 미국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B-101'을 개발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티바는 보통주 및 선납 워런트 발행을 통해 약 3억 달러(한화 약 4120억원)를 마련했다. 특히 선납 워런트는 주식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향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공모에는 블랙스톤 등 글로벌

투자 기관이 대거 참여했고 원천기술 파트너사인 GC셀과 GC녹십자홀딩스도 직접 투자에 나서며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투자 핵심은 GC셀이 개발한 원천기술 기반의 동종 유래 NK 세포치료제 'AB-101'이다.

GC셀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영역에서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NK 세포치료제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하는 CAR-T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기증자의 세포를 활용한다. 기성품 형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상업화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GC셀에 따르면, 'AB-101'의 경우 현재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2a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록했다.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해당 환자군 중 71%가 '관절염 증상 개선 50%'에 도달했다.

고감도 분석에서는 평가 가능한 환자 28명 전체(100%)가 B세포 완전 고갈을 보였다. 자가면역질환은 체내 비정상적인 B세포가 자기 면역계를 공격해 발생하는데 AB-101은 이를 완벽에 가깝게 제거함으로써 질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씨셀과 아티바는 이번 자금을 AB-101 임상 3상에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환자 투여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주요 데이터 도출, 202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신청 등을 추진한다. /이청하 기자

## 인벤티지랩, 경구용 비만치료제 특허 등록

기술 차별성·권리 범위 구체화

인벤티지랩이 비만·당뇨 치료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를 활용한 나노입자 제형 및 제조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의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그 염을 나노입자 내부에 안정적으로 담지하여 생체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정교화하고 기술적 차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등록에 성공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편의성을 극대화한 경구용 제형 개발 경쟁이 최근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허가된 약물로는 노보 노디스크의 '리벨서스정'(세마글루타이드 성분)과 일라이 릴리의 '파운드요'(오포글리프론 성분) 등이 있으나, 펩타이드를 이용한 경구용

비만약인 리벨서스정의 경우 생체이용률이 1% 수준에 불과해 약효 구현과 투여량 설정에 큰 한계가 있었다.

인벤티지랩은 자사가 보유한 고도화된 펩타이드 경구화 플랫폼인 'IVL-PePOFluidicTM'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이번 특허의 기존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투여 후 24시간 기준, 경구 대조약의 체내 노출도를 약 14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나노입자 기술 외에도 경구 제형화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고분자 펩타이드 경구제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전방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제에 국한되지 않고, 약물의 특성에 최적화된 전달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 전략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스타벅스, 이른 더위에 '자망코' 조기 등판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

여름 대표 음료... 출시 10일 이상 당겨

스타벅스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 무더위에 대응해 여름 시즌 주력 제품의 출시 일정을 대폭 앞당기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여름 시즌 대표 음료인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이하 자망코)'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출시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5월 중순부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출시일인 5월 22일과 비교하면 열흘 이상(11일) 등판 시점이 빨라졌다.

'자망코'는 2024년 첫 출시 이후 망고·자몽의 청량감과 코코넛의 부드러운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 /스타벅스 코리아

조화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온 제품이다. 카페인이 없는 '트로피컬' 콘셉트를 내세워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 670만 잔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스타벅스의 '여름 대목' 효과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홈플러스 생리대 8종 누적 판매량 15만팩

홈플러스가 선보인 초저가 생리대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5만 팩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말 개당 98.6원(중형 기준)의 '샬리의법칙 니즈윈 생리대' 4종을 출시한 데 이어, 3월에는 개당 98.3원 수준의 '잇츠미퓨어 생리대' 4종을 추가로 선보였다. 현재 판매 중인 국산 초저가 생리대 8종의 누적 판매량은 지난 4월 말 기준 15만 팩을 돌파했다.

홈플러스는 위생용품 가격 상승이 판매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00.49에서 올해 119.31로 상승하며 5년 새 약 19% 올랐다. /김서현 기자 seoh@

## تون업 기능 강화... 라네즈 선크림 리뉴얼

수분감·발림성은 유지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자외선 차단에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더한 고기능성 제품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선보인 라네즈 워터뱅크 선크림을 재단장한 '워터뱅크 블루 톤업 선크림(사진)'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제품의 강점인 수분감과 산뜻한 발림성은 유지하면서 피부 톤을 보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블루 색상 제형을 적용해 피부의 붉은기와 노란기를 중화해 보다 청명한 안색을 연출해 준다. /이청하 기자



또 메이크업 단계에서 사용해 피부 바탕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 메이크업 밀착력을 높이는 데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블루 히알루론산, 병풀 PDRN 등을

처방해 피부 진정, 피부 장벽 개선 등의 효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라네즈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을 기본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맑은 피부 표현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애경산업, 부천시 지역 화합 체육대회 후원**

애경산업이 지역 사회에서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애경산업은 지난 10일 부천 성곡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6 어울림 체육대회'를 후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최했고 인트리, 어울마루, 한부모가족센터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애경산업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애경산업



**하나은행, 中 小企 기업승계·M&A 지원**

하나은행은 지난 7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기술혁신을 돕기 위한 기업승계 및 인수합병(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M&A를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소진공, '정책소통 유공 포상'서 국무총리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2025년도 정책소통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정책소통 유공 포상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올해 소진공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정책 소통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진공

**GC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 AI신약개발 시대 선도 의지 강화**

창립 42주년 기념식서 미래연구 청사진 제시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바이오 신약개발의 명성을 다져온 데 이어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GC녹십자그룹은 지난 8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진 목암연구소장(사진)은 도전 정신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강조했다. 목암연구소는 지난 2022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에 중점을 두며 첨단 의약품 시장에 대응해 왔다. 특히 mRNA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연구를 중심으로 유전자 부문 전반에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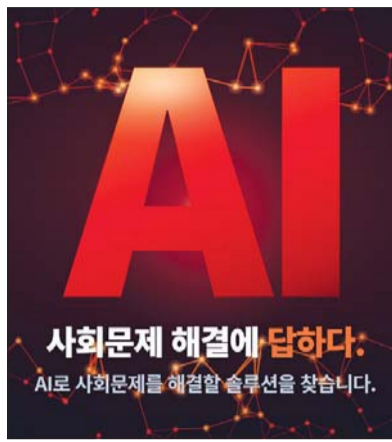
- ◆재영솔루텍<신임(전무)>경영지원실장 허욱
- ◆서울대병원△감사 오정훈

**SK이노, 에너지·사회문제 해결할 AI 솔루션 찾는다**

'AI 임팩트 솔루션' 참가팀 모집 10개 팀 선발해 사업화 지원 우수팀엔 투자·TIPS 연계까지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창업팀 발굴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AI 임팩트 솔루션'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이 주최·후원하고 임팩트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 역량을 보유한 재단법인 큐네스티가 주관한다. 단순한 아



'AI 임팩트 솔루션' 참여팀 모집 포스터. /SK이노베이션

이디어 공모를 넘어 육성,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 규모는 10개 팀이다. 선정 팀에는 실증 개발비와 함께 AI 기술, 비

즈니스, 임팩트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상용화 지원, 후속 투자 연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이 단계별로 제공된다. 우수 솔루션으로 선정된 팀에는 후속 사업화와 고도화를 위한 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2년 차에는 우수팀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발굴·육성 자금인 틱스(TIPS)와 임팩트 투자자 연계 등 추가 사업화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AI 포 에너지(for Energy)'와 'AI 포 소셜 이슈(AI for Social Issues)' 2개 트랙이다. AI for Energy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효율, 탄소 감축 등 에너지 분야 문제 해결에 기여할 AI 기반 솔루션이 대상이다. AI for Social Issues는 돌봄,

안전, 환경, 이동권,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설립 3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 팀은 우대된다. 모집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AI 임팩트 솔루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AI 기술은 산업 혁신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아이디어 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실질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장 재생치료 연구 '아시아 최우수 초록상'**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SCT서 ATORM-C 연구 성과 인정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이하 '오가노이드')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국제세포유전자치료학회(ISCT) 2026 더블린 연례 학술대회에서 '아시아 최우수 초록상(Top Scoring Asia Abstract Award)'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은 ISCT 아시아 지역 집행위원회가 아시아 제출 초록 중 학술적 완성도와 임상적 확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록이 접수된 가운데 선정된 만큼, 연구의 완성도와 임상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상을 받은 초록은 난치성 장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장 오가노이드 기반 장 재생치료제 아롬-C(ATOR

M-C)의 전임상 최적화부터 초기 인체 적용 결과까지를 담고 있다. ATORM-C는 환자 조직에서 유래한 성체 줄기세포 기반 대장 오가노이드를 체외에서 확장·분화시킨 뒤, 손상 부위에 직접 이식하는 재생치료 플랫폼이다. 기존 치료가 염증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ATORM-C는 손상된 점막을 실질적으로 재건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 증상 조절을 넘어 직접적인 조직 복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회사측은 이번 수상은 오가노이드 치료제의 GMP 기반 제조 공정 확립,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난치성 환자 대상 초기 임상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완수하며 세계 최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갔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중소사랑나눔재단, 소외계층에 온정 전달**

대전 동구 무료급식소서 진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이 지난 9일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대한사회복지원을 방문해 따뜻한 한 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10여명의 봉사단은 무료급식소에 방문한 100여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채소와 고기를 직접 손질해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밥과 국을 식판 가득 담아 푸짐한 한 끼를 전달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은 한 끼 나눔 봉사활동과 더불어 대한사회복지원에 1000만원 상당의 김치와 삼계탕용 닭 등의 식자재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9일 대전 동구 대한사회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2019년부터 시작한 중기연합봉사활동이 어느덧 78차를 맞이했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중기연합봉사단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에 더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파미르 실크로드서 한민족 개척정신 조명**

**지평 인문사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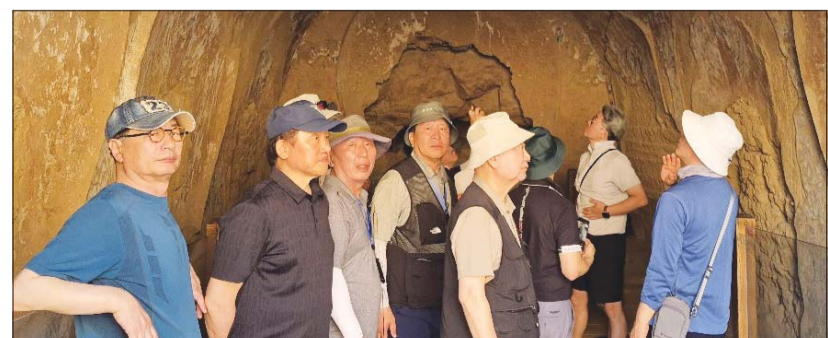
6박7일 신장위구르 일대 답사 카슈가르·쿠차·투루판 등 방문

지평 인문사회연구소(대표 김석동)는 '파미르 실크로드 탐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지난 5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탐방단은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오아시

스 도시인 카슈가르와 쿠차, 투루판, 파미르고원 일대를 둘러봤다.

김석동 탐방대장은 "과거 동서양의 문물과 문화, 경제, 종교, 철학이 교류하던 옛길 역할을 한 실크로드는 서쪽으로는 이스탄불, 동쪽으로는 신라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한민족의 도전과 개척정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지평인문사회연구소 회원들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산악지대 파미르고원 일대에 위치한 '파미르 실크로드'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있다.

**창립 85주년 맞아 미래가치 비전 공유**

**한국엔컴퍼니그룹 특별전 개최 'HANKOOK 갤러리'서 혁신 조명**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창립 8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과 그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문화·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전시와 포상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창립 85주년 기념 특별전시 'HANKOOK 갤러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

는 '우리가 그린 혁신,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임직원 전시존, 외부작가 전시존, 비전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그룹이 추구하는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임직원 전시존에서는 조직문화 프로그램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미션·비전 드로잉 작품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

**농심 백산수, 4년 연속 세계품질 대상**

몽드 셀렉션 생수 부문 최고 등급

농심은자사의 생수브랜드 백산수가 세계적 권위의 품질 평가기관인 벨기에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 생수 부문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Grand Gol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61년 설립된 몽드 셀렉션은 세

프, 소믈리에, 과학자 등 8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소비재 품질을 검증하는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

백산수는 올해 심사에서 '맑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미네랄 생수'라는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수준의 품질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AMERICCI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 개헌, 국민 합의가 우선이다



**기고**  
**김용식**  
전 국민의힘 경기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지난 8일, '개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우원식 의장은 눈물까지 보이며 개헌을 저지한 야당을 비난했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번 사태는 여권의 일방통행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때문에 헌법을 고치는 일은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중차대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의 발의 과정을 보면,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원내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제야당인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밀어붙였다.

우리 헌법이 개헌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규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여야의 폭넓은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개헌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개헌 반대는

나란 옹호'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조차 무시한 다수의 횡포다.

개헌의 주요 내용에는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계엄권을 통제하려 바꾸는 몇 줄의 헌법 조항 때문에, 북한 도발이나 국가 비상사태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국가 대응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화 과정을 헌법 전문에 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여해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며, 유공자 관련 특혜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과 UN군의 참전, 중공군의 개입 등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지켜낸 '자유 의 역사'를 넣자거나, 또는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로 눈부신 산업화를 만들어 낸 역사는 왜 포함하지 않는지는 국민의 반문에 이번 개헌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졸속 개헌의 비판은 1년 전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적

이 있다. 2025년 4월 7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모 언론에 '뜬금없는 개헌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개헌 논의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권이 제 맘대로 개헌안을 만드는 방식"이라며 단호히 반대했다.

더욱이 여권은 '개헌'을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피의자가 특검을 임명하고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나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사법 3법' 강행 처리야말로 명백한 위헌적 행태 아닌가. 현행 헌법도 무시하면서 헌법을 고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국민이 동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태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었다. 우원식 의장 역시, 본인 임기 안에 졸속으로 헌법을 고쳐 성과 내기에 급급했던 건 아닌지 눈물을 거두고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된 합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개헌을 잘 준비하길 바란다. /전 국민의힘 경기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 증시의 여름, 골목의 겨울



**기자 수첩**  
**허정윤**  
(자본시장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되는 것 같아. 장이 안 열리는 주말이 지겹고 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라니까!"

최근 기자의 지인이 건넨 말이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열기는 뜨겁다.

증권시장은 벌써 한여름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전성기에 들어선 듯하다.

하지만 골목시장은 아직 후한기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올해 1분

기 말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분류한 '추정 손실' 규모는 2조996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이상 연체됐거나 폐업·파산 등으로 사실상 때인 돈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채 하나둘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렇다고 증시의 상승을 거품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은 본래 현실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며 미래의 기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삼법 개정과 주주환원 기대를 감안하면 '만스피(코스피 1만)' 역시 단순한 공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승의 온기가 아직 골목경제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랠리는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 그리고 정책 기대가 이끌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시간을 벌었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빚의 무게를 견디고 있고, 영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법정관리로 내몰리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코스피 7800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고, 추정 손실 2조9963억원은 현재의 고통을 드러낸다. 하나는 증권시장의 한여름을, 다른 하나는 골목시장의 한겨울을 말한다.

지금의 상승장이 거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수의 기록만 보고 한국 경제 전체가 회복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짜 호황은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상승의 온기가 시장 밖으로 퍼져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증권시장의 뜨거움이 골목시장의 겨울까지 달을 때, 그때의 '만스피'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zelkova@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2일 (음 3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0년생** 집을 떠나면 고생만 가득합니다. **72년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큰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4년생** 과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 49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61년생**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73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연수를 가게 되어 이상형의 이성을 만납니다.
- 50년생** 현 상태를 무난히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62년생** 큰 어려움이 없는 하루입니다. **74년생** 가는 길이 매우 험하니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86년생** 서북방이 길하니 참고하세요.
- 51년생** 무난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63년생** 사람을 배반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75년생** 명예를 실추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87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2년생** 주변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64년생**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76년생** 모든 손해보는 일은 삼가하게 좋습니다. **88년생** 오래 전 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 53년생**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65년생** 휴식을 취하세요. **77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9년생** 사업을 하고 있다면 때가 좋지 못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54년생** 금전에 일회일비 하지 마세요. **66년생**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8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90년생** 성공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양을 것입니다.
- 55년생**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67년생** 마음을 편하게 갖고 즐겁게 사세요. **79년생** 사업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91년생** 늘 단전에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 57년생** 모든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69년생** 치열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1년생** 구설수를 주의하세요. **93년생** 좋은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 58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곧 찾아오게 됩니다. **70년생** 주변에 귀화를 도우려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힘을 내세요. **82년생** 등산을 하면 좋습니다. **94년생** 늘 안전부찰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 59년생**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71년생** 힘든일이 있지만 정신만 차리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83년생**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95년생** 귀인의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 김상회의四季 기도성취 사찰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삼천리 방방곡곡에 명찰 즉 이름난 사찰이 들어서 있다. 금수강산의 백미로 불리는 금강산에는 이제는 터만 남은 장안사와 유점사 묘향산에는 보현사 설악산에는 백담사 지리산에는 쌍계사와 화엄사 강원도 오대산에는 월정사와 상원사 등 산이면 산마다 내놓으라 하는 사찰과 암자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절이 자리 잡은 곳을 보노라면 경치도 경치지만 기운이 남다른 느낌이 명산대찰뿐만 아니라 작은 암자들까지도 어찌 그리 터를 잘 잡았는지 절로 감탄하게 된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오대보궁은 경건함은 물론이고 신묘로움을 넘어서 상서롭기 이를 데 없다. 진신사리를 모시게 된 시기도 모두 신라 시대 때의 일이니 천년 하고도 수백년 더 이전의 일이며, 신라의 자장율사가 모신 만큼 오대산 중대사자암, 영월 법흥사, 정선의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양산 통도사로서 태백의 등줄기에 이어지니 에너지의 기맥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모양새다.

그래서인가,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태백의 산세 못지않게 영험한 기도터가 각별히 많은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현세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관음기도나 약사기도를, 조상님들의 천도를 위해서는 지장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다. 또한 어떤 기도든지 한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소문난 곳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팔공산 갖바위이다. 전국에서 불자들이 널리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다. 불자들치고 팔공산 갖바위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다. 이외에도 각자 인연 있는 사찰이나 암자에서 가피를 받았다는 얘기는 불자들에게 있어 차고 넘친다. 기도는 무엇보다 간절함이다. 기도하는 이의 간절함과 하심은 기도성취의 필요조건이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 원력을 담아 발원 올려보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5		4	2		7	
			9	6				
	3			2	4			
	6			5			8	
4		9		1			2	
7		5			6			
		7	4			9		
			6	2				
2		4	1			5	3	6

8				7				
3				2	1	5	9	
5	2	4			7			
1	6			2		3		
			8		5			
		7	6				2	5
		6			9	5	4	
4	9	5	1				7	
			2					6

9	8	5	4	2	7	6	3	
9	7	2	6	2	9	1	8	8
1	8	6	8	9	7	2	2	9
7	2	9	8	8	5	6	1	2
2	2	8	1	9	6	8	9	7
8	6	1	9	7	2	9	2	8
6	9	2	2	8	8	9	1	1
8	1	8	9	6	2	2	7	9
2	9	2	7	1	8	9	8	6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배움에는 나이 없다”... 서울형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 서울시교육청-강동송파지원청 고령층 문해교육 학습자까지 넓혀 안전체험·원어민 영어교육 등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중심이던 교육 인프라를 고령층 문해교육 학습자까지 확장하며, 안전체험부터 원어민 영어교육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교육 모델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문해교육 학습자 체험학습 연계 운영’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연계해 학령기 학생 중심 교육서비스를 평생교육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



은 학생교육원이 보유한 안전·외국어 교육 전문 인력과 안전체험관, 가족야영지 등 인프라를 학생뿐 아니라 평생교육 학습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실 이론 수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문해교육에 현장 체험 학습을 접목해 고령층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

공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사업의 핵심인 ‘평생교육 문해교육 학습자 체험학습 연계 운영 사업’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1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학생교육원 본원과 경기도평균 소재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학생교육원은 체험학습 분야별 전문

지도자와 원어민 강사 등을 투입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체험관·언어체험관·가족야영지(통나무집) 등 교육 공간과 차량, 고령자 식이 특성을 고려한 식단까지 지원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관내 문해교육 기관과 협력해 고령층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콘텐츠 적합성 검토와 참여기관 모집 등 사업 전반을 함께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 학습자의 신체·연령 특성을 반영해 실생활 중심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초등과정은 ▲지진·화재대피훈련 ▲고령자 맞춤형 심폐소생술 ▲파라코드 만들기 ▲뉴스포츠(콘솔 수업) ▲캠핑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중·고과정은 ▲공항 입국심사 체험 ▲마트에서 물건 사기 등 해외여행 상황을 활용한 원어민 영어체험 ▲목공 작품만

들기 ▲태도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이 재난 대응에 취약한 고령층 학습자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및 다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문자 해독 중심이던 성인 문해교육이 안전·언어·체험 활동까지 확대되며 평생학습의 외연도 넓어지고 있는 평가다. 특히 참여자 의견과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운 학생교육원 원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대학생 학비 부담 2년새 35만원 감소

### 지난해 정부재원 장학금 4.9조 학자금 지원 대상·범위도 늘려

지난해 대학생 1인당 정부 학비 부담 경감액이 263만원으로 집계되며 2년 사이 약 3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2자녀 가구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2000억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총 4조3000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9000억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258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부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도 2년 사이 35만원 늘었다. 실제 지원 대상 학생 기준으로 보면 체감 경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학자금 지원 확대 흐름은 올해도 이

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면제 지원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학부생 등록금 대출은 기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서 10구간 이하로 확대됐고, 대학원생은 기존 4구간 이하에서 10구간 이하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생활비 대출 역시 대학원생 기준 지원 대상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도 추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1~5구간 학생에게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이자를 면제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6구간까지 확대되고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개선된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킨텍스 K-UAM 실증센터 구축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고양시가 킨텍스 일대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거점을 조성하며 수도권 UAM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킨텍스 2단계 계획 H1 지역 약 1만5000㎡ 부지에 K-UAM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증센터는 도심항공교통 기체가 실제 도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기반시설로 조성된다.  
도심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항공기를 활용해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단계별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수도권 도심 실증 구간과 연계해 킨텍스 일대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K-UA



M 부지사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킨텍스 일대에는 버티포트와 여객터미널, 격납고, 운항 통제시설, 정비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버티포트는 도심항공교통 기체가 이착륙하는 핵심 시설이다. 고양시는 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먼저 구축해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여객터미널과 정비시설을 갖춘 종합 버티포트 형태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인천문화예술회관 ‘황.금.토.끼’ 15일 개막

### 시립예술단 4개 단체 야외 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인기 야외 공연인 ‘황.금.토.끼’가 올해는 장소를 옮겨 시민들과 만난다.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라는 의미의 ‘황.금.토.끼’는 무료 공연으로, 올해는 인천시립예술단 4개 단체의 알찬 무대로, 단체객석과 호흡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압도적인 몰입감과 생생한 현장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의 시작은 15일 인천시립합창단의 ‘멜로디 속 한 장면’이라는 주제 아래,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우리의 꿈’, 영화 ‘토이스토리 2’의 ‘When She Loved Me’를 비롯해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친숙한 음악들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6월과 7월에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6월 5일 금관 앙상블 ‘브라스 판타지아’ 7월 24일에는 섬세한 ‘목관 오중주’로 한여름 밤의 클래식 선율을 전한다.  
인천시립무용단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국가 무형유산 전통춤 이수자들의 멋진 춤사위 ‘전통의 숨, 이어온 몸짓’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의 주목할 만한 것은 독무 중심으로 구성돼 전통춤의 깊이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5월 12일 (화)  
음력 : 3월 26일

수도권 날씨  
15~2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4/22, 동두천 14/22, 가평 13/22, 파주 14/23, 서울 15/22, 양평 14/22, 수원 14/21, 용인 14/21, 평택 14/21, 백령도 11/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죽기를 기다리는 감옥”...노벨평화상 모하마디, 이란 교도소 참상 폭로
- ▲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접근 금지에도 영상 찍으려다 ‘참변’ /사진 뉴시스

-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이틀간 장거리 공격 자제...러, 전면전 복귀시 맞대응”
- ▲ 도쿄 서점서 책 훑친 40대 한국인...7년간 1만권·5400만원어치 되팔아

- ▲ WHO “한타바이러스 노출자 42일 격리 권장...美 완화 조치 우려”
- ▲ 美 한국계 영 김 의원, ‘中 대만 침략 저지 법안’ 발의



국내 편의점  
36년만에 감소  
시장재편 본격화  
L1



Life

큐라클  
1조 규모  
기술 수출  
L2



# 독립 가치 있고, 푸른 지구 지키고 사회에 '웃음 씨앗' 심다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빙그레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소."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의 위대한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근심과 설움, 가책이나 훈타 없이 오직 양심에서 우리나라의 순수한 웃음을 '빙그레'라 정의했다. 그는 갓난아기의 '방그레', 젊은이의 '빙그레', 늙은이의 '빙그레'로 웃음을 구분하며, 이 밝은 미소야말로 우리 민족이 되찾아야 할 본연의 모습이라 강조했다. 도산이 꿈꿨던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오늘날 식품기업 '빙그레'의 경영철학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 ◆도산의 가르침이 기업의 심장되다

빙그레의 사명(社名)은 단순한 브랜드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민족적 유산을 담고 있다. 빙그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미소 운동'에 착안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밝은 미소의 메신저'라는 기업 미션을 수립했다. 이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운 웃음을 드리는 '사회적 기여자'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나눔과 상생의 경영철학은 근 60년간 빙그레 경영의 근간이 되었다. 빙그레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을 견고히 쌓아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으며, 2025년 상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A를 받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 ◆김호연 회장 신념이 '보훈 경영'으로

빙그레의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독보적이며 진정성 있는 행보는 단연 '독립운동 선양 사업'이다. 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확고한 역사 의식과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김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김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장, 독립기념관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독립유

도산 안창호 선생 '미소 운동'서 착안 민족 역사와 유산 담은 사명 '빙그레' 국민에게 기쁨 주는 경영철학 이어와

김구재단 설립... 독립유공자 지원 8년간 독립후손에 5.7억 장학금 전달

공자 지원 사업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철학은 빙그레공익재단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11년 설립된 재단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빙그레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관제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맺은 업무협약은 그 의미가 깊다. 재단은 이후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415명에게 5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근 빙그레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군무자(경찰, 소방 등) 자녀들에게까지 잇기로 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 ◆지구도 미소 짓는 '에코 프렌들리'

빙그레의 미소는 사람을 넘어 자연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2024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에서 탄소중립 실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빙그레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업계의 파스트 무버 역할을 자처한다. 영업용 냉동 탑차를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며 탄소 배출량 저감에 나서는가 하면, 제조 공정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주요 제품의 패키징 혁신이다. 떡볶이 발효유의 대명사인 요플레 오리지널은 2012년부터 컵 용기 경량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해왔으며, 플라스틱 캡을 제거한 리뉴얼 제품을 선보이는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감축했다. 국민 간식인 바나나맛우유는 용기의 중량을 줄이고, 용기 생산 과정에서 남게 되는 플라스틱을 가공 후 재사용해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테일한 노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캠페인과 궤를 같이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1 빙그레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지구를 위한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2 2025년도 경찰청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전달식.  
3 빙그레는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 왔다.  
/빙그레



### 탄소중립 우수기업...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효율 혁신, 친환경 패키징 확대

### 40여년간 어린이 위한 '그림잔치' 열어 임직원 참여 국내외 환경 개선활동도

### ◆어린이 꿈과 파트너사 성장을 위해

빙그레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전한다. 1986년부터 40여년간 이어온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는 아이들이 꿈과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수백여 명의 어린이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국내 대표 문화 예술 축제로 거듭났다.

또한,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위해 2001년부터 약 20여 년간 해비타트(사랑의 집짓

기) 운동에 참여해 왔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건축비 지원을 통해 강원도와 천안 등 국내는 물론 몽골, 태국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해외 지역에도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아가 투게더와 바나나맛우유의 판매 수익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을 돕는 '희망풍차 사업'을 비롯해 RCY,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후원하는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식품 회사로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다. 빙그레는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거래 절차를 준수하고, 협력업체의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셀틱 양현준, 시즌 10호골...홍명보호 명단 발표 전 '존재감' /사진 뉴스사  
▲이재성·정우영, 코리안더비...'최초 유럽 5대리그 감독' 에타 첫 승

▲'WNBA 韓역대 3호' 박지현, 개막전에서 데뷔 전 치러  
▲'홍명보 감독 앞에서 2경기 연속골' 이승우... '최선 다할 뿐'

▲'손흥민 MLS 9호 도움 취소'...LAFC, 휴스턴에 1-4 완패  
▲상승세 제대로 탄 삼성 라이온즈, LG 잡고 선두 노릴까